News p/02

"이라크 유전 MOU 사기"

metro
메트로 2015년 2월 13일 금요일 제3157호 www.metroseoul.co.kr

Entertainment p/17

'반전 매력' 넘치는 지민

尙有大望★野神不死

상유대망 야신불사

김성근 감독, 만년 꼴찌 한화 이글스 우승 프로젝트 p/10

15억 몸값 김태균 등 '지옥훈련' 혹독한 겨울

땅콩 회항 조현아 징역1년 실형 p/23

이완구 총리 인준안 16일 처리 p/3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와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세요

"MB 이라크유전 MOU 35억달러짜리 사기극"

최민희 의원 주장 · 이라크 정부 무효 통보

2009년 2월 잘랄 탈라바니 이라크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이명박정부가 체결한 35억 달러 규모의 이라크 유전 개발권 MOU가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이라크 현지언론 보도를 인용해 "당시 (한국과 MOU를 체결한) 탈랄바니 대통령은 명예직이고 실권 있는 직책에 있는 사람이 아니며 이라크 정부는 한국 정부에도 외교적인 방법으로 이라크 북부지역의 어떤 석유거래 계약도 논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어 "실제 이라크 정부는 계약체결 이후에도 쿠르드 유전 개발에 참여한 한국 기업을 유전개발 입찰에서 배제한다고 밝혔고 2009년 4월 지식경제부 대표단과의 협의에서는 (한국 측이) 바스라 유전 개발에 대한 확답을 요청했지만 이라크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결국 2011년 4월 이라크가 한국 기업에 유전개발 입찰 기회를 줄 때까지 2년 2개월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명박정부는 이라크와의 대규모 계약을 전면적으로 홍보하면서 경제 위기 속 가뭄의 단비 '한국기업의 이라크 블랙리스트 딱지 해결' 등 자원외교의 큰 획을 긋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웃지 못 할 촌극이 있었다"며 "이명박정부의 뻥튀기 자원외교, 어쩌면 자원외교의 실상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날 최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이라크통신사를 비롯한 현지언론은 "누리 말리키 이라크 총리의 고문들은 (탈랄바니 대통령을 수행한) 니제르반 바르자니 쿠르드 자치정부 대통령이 석유계약을 비도록 부추겼다"며 "(이전에) 이라크 연방정부는 한국석유공사가 연방정부가 아닌 쿠르드 자치정부와 석유계약을 체결해 한국석유공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린 바 있다"고 보도했다. 또 "복수의 (현지) 정치소식통은 탈라바니 대통령의 방한이 이라크 연방정부와 쿠르드 자치정부 간의 관계 악화와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보도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평양출신 총리·대통령 수용할 수 있나"

마파엘 주한 독일대사

"통일에 대해 이어 가려면 평양 출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독일을 대표하고 있는 롤프 마파엘 주한 독일대사가 12일 우리 국민에게 던진 메시지다.

마파엘 대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강연을 통해 "독일은 동독 출신의 대통령과 수상이 나왔기 때문에 정치적 통일이 완성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독일의 일부 주는 주 총리가 동독 공산당 출신"이라며 "동독 공산당이 통일 후 25년 지난 이후에도 독일의 한 주에서 주 총리를 배출한 것은 주목할 만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마파엘 대사는 남북 간 교류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그는 "최대한 빨리 남북 간 인적교류와 경제협력을 시작해야 한다"며 "더 많이 남북 간에 소통할수록 서로 이해가 높아지고 관계 개선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 남북 간 대화가 진행되지 않는 부분은 안타깝다"며 "남북이 올해 큰 기념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잘 잡아야 한다. 대화가 열렸을 때를 대비해 사전에 준비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했다.

/송...

북한 "잘살아보세~"

당 창건 70주년 구호발표

북한이 광복 및 창당 70주년을 맞아 경제발전 의지를 담은 공동구호를 발표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는 "뜻깊은 올해를 조국 역사에 특기할 위대한 승리의 해, 혁명적 대경사의 해로 빛내이자"고 호소하며 공동구호 310여개를 발표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북한은 당 창건이나 김일성 주석 생일 등 꺾어지는 해의 주요 정치적 기념일을 앞두고 노동당 명의로 구호를 발표해 전 주민에 분발을 촉구하고 있다. 당 중앙위원회 구호는 1954년 4월 25일을 앞두고 당 중앙위 단독으로 발표된 이래 북한이 중요한 계기 때마다 투쟁방향을 제시, 주민동원 등에 활용해온 대내 선전선동 수단의 하나다.

이날 각 분야의 과제를 적시한 공동구호는 310여개 중 100여 개 이상이 경제 발전과 주민 생활수준 개선에 집중된 것이어서 북한이 최근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북한은 "허를 깎아서라도 인민생활 문제를 풀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받아 닳도록 뛰고 또 뛰라", "국방공업부문이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라"는 등의 구호를 선정했다.

김정은 정권의 농업개혁 핵심인 포전담당제와 내각책임제·중심제 강화 등을 언급하며 현재 추진 중인 경제개혁의 지속적인 실천을 강조했다.

노동당은 또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와 경제개발구개발사업을 밀고 나가라고 고도 촉구했다.

이밖에 "99%의 나쁜 점에 단 1%의 좋은 점, 양심이 있다면 대담하게 믿고 재생의 길로 이끌어주라"며 '인민사랑'을 강조, 민심을 얻고 체제 결속을 꾀하려는 속내도 보였다.

북한이 정치·경제·사회·군사·동원 등 모든 분야가 총망라된 구호를 발표함에 따라 향후 북한 전역에서 구호 관철 궐기모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윤아기자 yoona@...

간호사관학교 예비생도의 눈물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무사히 마친 국군간호사관학교 예비생도들이 12일 교내에서 간호장교로서 헌신을 다짐하는 의미를 담은 백장미를 받고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5·24조치 이후 남북·북중 교역 되레 증가

대북 제재조치인 5·24조치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에 따르면 5·24조치 실시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교역의 발전으로 남북교역 규모가 5·24조치 이전보다 오히려 더 커졌다. 또 북중 간 교역량도 폭증해 5·24조치가 기대했던 제재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북 총 교역액의 경우 2010년 19억1200만 달러에서 5·24조치가 발효된 2011년에는 총 17억1400만 달러로 줄어들었지만 개성공단 교역은 꾸준히 증가함으로써 2012년에는 남북교역이 총 19억7100만 달러로 5·24조치 실시 이전보다 오히려 더 늘어났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5·24조치가 실시된 2010년 남북교역 전체에서 개성공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분의 3정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4분의 1인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제재조치는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5·24조치 실시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교역의 발전으로 남북교역 규모가 이전보다 오히려 더 커져 5·24조치가 북한에게 큰 고통이 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중 교역액의 경우에는 5·24조치가 실시되기 전인 2005~2009년의 경우 연평균 북중 무역 증가율은 15%에 불과했다. 실시 이후인 2011년의 양국 무역규모는 56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무려 63%나 증가했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5·24조치는 실시 직후에 남북관계에서 일정한 대북 압박 효과가 있었지만 개성공단 교역의 발전과 북중 무역의 확대로 곧 그 효과가 현저하게 감소했고 갈수록 더 적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윤아기자

"총리 인준과정 블랙코미디"

<정홍원> <이완구>

'빽도 총리냐, 반쪽 총리냐' 문제 두고 국민 따가운 시선

"나라꼴 참 우습다."

12일까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문을 지켜 본 대다수 국민들의 반응이다. 이 후보자의 인준 여부를 떠나 최근 국회와 정부를 무대로 펼쳐진 상황은 한 편의 '블랙코미디'로 전락했다는 평가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해 4월 27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사의를 표명했지만 거듭된 총리 후보들의 낙마로 떠나지 못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후 정 총리에게 '빽도 총리'라는 별칭이 붙었다.

정 총리는 이번에도 떠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새 총리가 임명될 것으로 예상하고 총리공관과 집무실의 개인물품까지 모두 빼놓은 채 속만 태우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로 인해 정 총리는 또 다시 희화화의 대상이 됐다. 온라인에서는 정 총리를 주인공으로 한 각종 패러디물이 넘쳐난다. '영원히 임기가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로 '총리의 블랙홀'이라는 영화포스터가 만들어졌다. 같은 시간대가 무한 반복되는 미국 영화 '사랑의 블랙홀'의 패러디다. 이밖에도 '존재감 제로 총리가 살아왔다. 2013~2327 총리의 재림' 등 갖가지 패러디가 줄을 잇고 있다. 최근 화제가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 이어 정 총리가 '국무총리의 시간'이란 회고록을 쓸 거라는 비아냥도 있다.

아직 국회 인준 전이지만 이 후보자에게는 '반쪽 총리'라는 별칭이 붙었다. 설사 총리가 되더라도 야당이 거부한 정당성 없는 총리라는 의미다. 온라인에는 이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꼬집은 이른바 '네티즌 수사대'의 작품들이 나돌고 있다. 갖가지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총리가 국민의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빽도 총리냐, 반쪽 총리냐'의 문제를 두고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한국 국방비 세계 10위

지난해 11위서 한계단 상승

한국은 지난해 세계 10위 수준의 국방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11위에서 한단계 상승했다.

11일(현지시간) 영국의 외교분야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공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의 국방예산은 344억 달러(약 38조 700억원)로 독일(439억 달러)에 뒤이어 10위를 기록했다. 미국이 5810억 달러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중국(1294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808억 달러), 러시아(700억 달러), 영국(618억 달러) 이 차례로 순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2월 공개된 2013년 국방예산의 경우 미국 6000억 달러, 중국 1122억 달러, 러시아 682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 596억 달러, 영국 570억 달러, 프랑스 524억 달러, 일본 510억 달러, 독일 442억 달러, 인도 363억 달러, 브라질 347억 달러, 한국 318억 달러 순이었다.

이번 국방비 지출 순위에 북한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IISS는 북한에 대해 "미사일 기술과 대량살상무기 능력을 크게 늘렸다"고 평가했다.

IISS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서방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은 감소하는 추세지만 아시아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아시아 전체에서 차지하는 국방비의 비율이 2010년에는 28%였지만 지난해에는 38%로 급증했다.

IISS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인접 국가들과의 영토분쟁과 미국의 역내개입을 막기 위해 국방력을 강화했다"며 "중국의 군사적 목표는 지역 패권을 쥐고, 외부로부터의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재래식 억지력을 갖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정원기자 [illegible]

휴면계좌 5700억 꿀꺽한 은행들…금융당국 수수방관

시중은행들이 부당하게 계좌를 휴면처리해 5700여억원을 꿀꺽했는데도 금융당국은 이를 수수방관한 사실이 적발됐다.

12일 감사원에 따르면 17개 시중은행은 2007년 9월부터 2013년말까지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중인 예금 5744억원을 부당하게 휴면예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지적됐다. 휴면예금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으로 은행은 이를 임의로 수익처리해왔다.

2012년 8월 대법원은 은행이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계좌는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나도 휴면예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그런데도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에 대해 부당하게 휴면처리한 계좌를 복구하는 등 예금주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예금 5744억원에 대해 이자 지급과 계좌 조회가 정지되면서 1055억원이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예금주의 재산권이 침해됐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실시한 2006년부터 A은행이 전산시스템 미비를 이유로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 감사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자들이 은행을 찾아 직접 서류를 발급받거나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입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송병형기자

"사드 한반도 배치, 미국 결정·요청 없었다"…당국 재확인

정부는 12일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미국의 결정이나 요청이 없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현재 입장이 무엇이냐"는 외신 기자의 질문에 "사드 한반도 배치 관련, 미 측의 결정이나 요청도 없었으며 협의도 가진 바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으로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존 커비 미국방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 "우리 모두 사드 미사일 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한국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담당관은 "우리는 이미 한국 내에서 부지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사드 문제를 한국 측과 비공식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진실하지 않다"며 "불행히도 일부 언론들의 잘못된 보도로 우리와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발언이 논란 조짐을 보이자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한·미 간에 어떤 협의도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노 대변인은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미국 대북정책이 남북대화를 이끌어내려는 한국 정부의 시도를 어렵게 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미국 정부는 남북 대화가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북핵 협상과 한·미연합훈련을 연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실험은 수차례 걸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금지된 것으로서 북한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한·미연합훈련과 연계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윤미기자

레펠을 이용한 침투 2015년 코브라골드 연합훈련에 참가 중인 해병대 장병들이 12일 한·미·태국 연합수색팀과 레펠을 이용해 가상 적의 은거지에 침투하고 있다. '코브라 골드 훈련'은 가상 국가에 다국적군이 투입돼 분쟁을 종식하고 안정화되기까지의 과정을 숙달하기 위한 훈련으로 미국 태평양사령부와 태국 군사령부 주관으로 1981년 시작돼 해마다 열리고 있다. 올해는 9일부터 20일까지 태국에서 실시 중이다. 지난 2010년 이후 6번째 참가하는 이번 훈련에는 해병대 수색부대 38명과 연합참모단 14명이 참가했다. 미국, 태국, 싱가포르 등 7개국도 참가했다.

/연합뉴스

metroglobal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Ecuador

metro France

Charlie Hebdo : deux plaques commémoratives vont être po Paris

파리에 '샤를리 에브도' 추모 공간

프랑스 파리에 샤를리 에브도 테러 를 추모하기 위한 공간이 건립된다. 대중운동연합(UMP) 대표 나탈리 코시우스코 모리제는 "이번 추모 공간 건립은 지난 1월 11일에 벌어졌던 테러 사건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공화주의 정신을 후세에도 전달하기 위해"라며 "모든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억의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파리시는 추모 공간을 마련하는 기본 계획안을 구성한 상태다.

metro Brazil

Galeão. Tempestade amassa avião e força pouso

우박 맞은 비행기 긴급 착륙 소동

브라질에서 우박 폭풍우로 인해 파손된 비행기가 회항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지난 8일 오후 5시께 히우 지 자네이루 공항을 출발한 TAM항공기 3307편이 이륙한지 얼마 되지 않아 난기류에 진입했다. 이 항공편은 곧 이어 맞닥뜨린 우박 폭풍우로 인해 앞부분이 찌그러졌다. 조종사의 침착한 대응으로 긴급착륙을 시도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metro HongKong

添都教授

'별그대' 김수현 마담투소에서 만나볼까?

지난해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별그대)' 열풍이 홍콩에서 여전히 뜨겁다.

메트로 홍콩은 '별그대' 홍콩팬들이 올해 5월 더 가까이서 도민준 교수를 만날 수 있을 전망이라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개관 15주년을 맞은 홍콩 마담투소 박물관이 5000만 홍콩달러(약 71억 3000만원)를 투자해 한류관과 중국테마관 등 코너 두 개를 신설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마담투소 박물관 최고경영자(CEO)인 데이빗센은 "마담투소 박물관은 2005년부터 관람객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2013년에는 아이언맨, 헬로키티 등 캐릭터를 전시했다"며 "홍콩 관람객과 해외 관광객 모두 한류스타를 매우 좋아해 한류관 코너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홍콩 마담투소 한류관 코너는 '별그대' 장면을 재현하는 것은 물론 세계 최초로 도민준 역을 맡았던 김수현 밀납인형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박물관은 개막행사에 특별한 손님을 초청한다고 예고해 팬들의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한편 15주년 기념으로 박물관은 아시아 입장권 15매를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증정할 계획이다. 행운의 주인공은 홍콩, 상하이, 베이징, 우한, 싱가포르, 도쿄, 방콕 등 아시아 7개국의 마담투소 박물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정리=이국명기자

<수입차>

"현대차 에콰도르 시장 넘버원"

호세 현지법인 마케팅 담당 사장 "40년 전 첫 수출국 인연 · AS 강화로 브랜드 가치 쑥"

현대자동차에게 에콰도르는 매우 특별한 나라다.

현대자동차의 첫 수출 국가가 에콰도르이기 때문이다. 1976년 현대자동차는 에콰도르에 포니 6대를 수출하며 글로벌 기업의 꿈을 키웠다. 40여년이 지난 현재 에콰도르 수입차 시장 1위는 단연 현대자동차다. 에콰도르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동차 브랜드에도 현대자동차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메트로 에콰도르는 현대자동차 에콰도르 법인의 호세 이발라 마케팅 담당 사장을 만나 2015년 현대자동차의 전략을 들어봤다.

▶올해 자동차 산업관련 규제들이 더욱 늘어났다.

▶▶자동차 분야의 수입 쿼터 축소 등 악재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창의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위기 상황이든 아니든 현대자동차는 언제나 브랜드 가치 유지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신차 판매는 물론 애프터서비스, 자동정비 분야 등에서도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길이 많다.

▶사업 분야 확장 계획은.

▶▶영업용 차량 시장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규모는 작지만 점유율 확보를 위해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현대차의 위상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6년 전 판매량 세계 7위에서 올해는 3위로 껑충 뛰었다. 품질 집중 경영이 주효했다고 본다. 1980년대 현대자동차는 대량 생산에만 초점을 둔 브랜드였지만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면서 품질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

▶에콰도르에서는 어떠한가.

▶▶에콰도르에서 수입 자동차 1위 브랜드는 단연 현대자동차다. 에콰도르 국내 판매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전국적인 애프터서비스 망 구축도 거의 완성된 단계다. 항상 고객에게 최상의 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에콰도르 국민도 이를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

▶에콰도르 내 판매량이 어느 정도인가.

▶▶2014년에는 1만300대를 팔았다. 올해는 쿼터 축소로 인해 약 5500대 정도를 팔 것으로 예상한다.

▶애프터서비스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는데.

▶▶기본 목표는 고객들을 지키는 것이다. 정비소 별 다양한 부품 구비, 오일 등 소모품 가격 경쟁력 강화, 자동 정비 서비스 무료 제공 등을 계획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수입 쿼터 규제가 부품 수급에 지장을 주지는 않나?

▶▶현재로서는 우리의 구상에 필요한 충분한 부품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 규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품 수요량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에콰도르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 설명해 달라.

▶▶경차 라인에서 13개 모델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영업용 차량 라인에서는 8개 모델을 판매하고 있다. 소형차부터 프리미엄 라인까지 차종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유지시킬 계획이다.

/크리스티안 메히나 기자·정리=이국명기자

중소보험사 "설계사 늘려라"

새 영업채널 성장세 더뎌… 신뢰도 높은 대면채널 선호

중소보험사들이 전통적인 대면채널인 설계사 모집에 한창이다. 지난해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을 계기로 텔레마케팅(TM) 영업이 성과를 못 얻고 대형독립보험대리점(GA)과 홈쇼핑 등에서도 불완전판매율이 높아진 데 따른 방책이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PCA생명은 11일 역량 있는 설계사(PC)를 지원·육성하기 위한 '프라임 MDRT' 프로모션 발대식을 개최했다.

MDRT(백만달러 원탁회의·Million Dollar Round Table)는 생명보험 판매분야에서 명예의 전당으로 일컬어지는 세계적인 협회다.

ING생명도 지난달 'HELLO MDRT(Million Dollar Round Table)'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 회사는 MDRT회원이 된 설계사에게 축하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한다. 5년 이상 활동한 설계사가 MDRT를 달성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AIA생명은 지난달부터 대면채널 영업 역량 확대를 위해 '타깃 리크루팅'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회사는 20·30대에게는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월 정착보조금으로 직전 월 평균소득의 110%를 최대 24개월까지 지급한다.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설계사에게는 첫 3년간 성과에 따라 5년차까지 최대 5000만원의 교육자금을 지원한다.

현대라이프는 최근 대대적인 설계사 도입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 회사는 매달 200명의 신입 설계사를 도입하고 점포 하나당 평균 10여명인 현재 설계사 인원을 3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농협손해보험은 이달 초 개인영업 부문 강화를 위해 박승준 전 동부화재 상무를 부사장으로 영입하고 대면채널을 강화하고 있다. 박 부사장은 동부화재에서 제휴영업부장, 한화손해보험에서 신채널사업본부장(상무), 개인영업총괄 상무 등을 지낸 대면채널 영업 전문가다.

중소사들이 설계사 지원을 통한 대면채널을 강화하는 데는 기대치보다 신 영업채널의 성과가 더딘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생보사가 받아들인 초회보험료는 11조1995억6100만원이다. 이중 대면채널의 비중은 98.94%에 달한다. 손보업계에서도 지난해 10월까지 원수보험료 60조3864억1100만원 중 대면채널은 37.92%에 달한다. 반면 TM은 1.62%에 불과하고 온라인과 홈쇼핑 채널은 0%대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사는 설계사보다 사업비가 저렴한 홈쇼핑·TM·GA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도 "이 신채널들이 예상보다 성장이 더디고 불완전판매율이 늘어 감독당국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설계사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840@metroseoul.co.kr

"제2롯데월드, 구조·지반 안전"

초고층 전문가들 시공기술 발표회서 언급

제2롯데월드 안전관리위원회가 12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시공기술 발표회를 열고 제2롯데월드의 구조와 지반 모두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발표회에는 제2롯데월드의 구조설계를 맡은 미국 레라(LERA)사의 창업자 레슬리 얼 로버트슨, 토목설계를 맡은 영국 에이럽(ARUP)사의 홍콩지사 부사장 제임스 시즈 왕초, 대한건축학회 홍성걸 서울대 교수, 한국콘크리트학회 부회장 박홍근 서울대 교수, 한국건축기술사회 서규석 회장 등이 참석했다.

영국 에이럽사의 제임스 홍콩지사 부사장은 롯데월드타워의 지반을 현재 최고층 건물인 아랍에미리트(UAE)의 베즈칼리파와 비교·설명했다.

제임스 부사장은 "초고층 건물은 무거운 하중으로 침하되기 마련인데 롯데월드타워의 지반은 베즈칼리파의 예상 침하량 절반 수준으로 견고한 편"이라며 "지반 침하량을 조사한 결과 롯데월드타워는 예측 값 39㎜의 4분의 1도 안 되는 9㎜의 침하량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제2롯데월드 안전관리위원회가 12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구조안전성에 대해 시공기술 발표회를 개최했다.

그는 이어 "건물을 짓기 전 다취로 인해 주변 지역의 침하가 얼마나 일어날 수 있는지 연구를 마쳤다"며 "최대치인 39㎜가 침하될 경우 주변에서는 2㎜의 내려앉는 것으로 예측돼 사실상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조설계를 맡은 LERA사의 창업자 레슬리 얼 로버트슨은 "롯데월드타워는 건물 최상부에서 순간 최대풍속 128m/sec에 견디고 건물은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한 LA의 지진하중보다 더 큰 하중에도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구조물의 연속붕괴방지설계라는 개념을 적용해 추가적인 안전성도 확보됐다"고 밝혔다.

/박선옥기자 psy0820@

market index <12일>

코스피	코스닥	금리	환율
1941.83 (-4.07)	602.24 (+0.83)	2.08 (+0.03)	1107.59 (+7.00)

e편한세상 캐널시티 완판 감사 콘서트 개최

대림산업이 아파트 완판에 감사이벤트를 벌인다.

대림산업은 시행사인 스타스톤디앤씨와 함께 아파트 'e편한세상 캐널시티'의 완판을 기념하며 14일 계약자와 가족들을 초청해 재즈콘서트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콘서트에는 김준, 웅산, 최용민 등 유명 재즈아티스트들이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공연은 e편한세상 캐널시티 견본주택(김포시 장기동 717-2번지) 1층에서 7시에 진행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김포한강신도시 Cc-05블록에 분양한 e편한세상 캐널시티는 계약 마감까지 한 달이 걸렸다. 대림산업은 현재 아파트 단지 내 전용면적 30~135㎡ 54개 점포로 구성된 상가 'e편한세상 캐널시티 애비뉴'를 분양 중이다.

/김학철기자 kimc0604@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신문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인 겸 편집인 ...
사장 편집인 김 동 하
편 집 국 장 김 서 준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71

세뱃돈 지급하고 이동점포 운영하고

은행권, 설맞이 이색 행사 진행

설날을 맞아 은행권에서 제공하는 이색 이벤트가 눈길을 끌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시중 은행에서는 금융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이동점포부터 신권 판매, 세뱃돈 캐시백과 금지급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시행하고 나섰다.

기존의 할인혜택에서 한발 더 나아가 색다른 명절 준비의 재미까지 더한 셈이다.

외환은행은 외국통화 세뱃돈 1만5000세트를 판매한다.

외국통화 세뱃돈 세트는 행운의 미화 2 달러를 포함해 유로화와 중국 위안화, 캐나다 달러, 호주 달러 등 5개국의 통화(권액 신권)로 구성된 특화상품으로 선착순 한정 판매된다.

이는 실용신안등록(등록 제20-0436363호)이 되어 있어 국내은행 중 유일하게 외환은행만이 제공할 수 있다.

판매가격은 지난달 30일 환율 기준 권종에 따라 A형의 경우 약 2만원, B형의 경우 약 3만6000원이며 일반 환전과 마찬가지로 구매시점의 환율에 따라 최종 가격이 결정된다.

또 고객이 별도로 요청하면 권종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기본 세트에는 미국의 여배우 그레이스 켈리가 선물 받은 후 모나코의 왕비가 됐다고 알려진 '행운의 2 달러' 의 유래를 비롯해 각국 화폐와 화폐 속 등장 인물에 대한 설명 등 유익한 자료도 표기돼 있다.

외환은행 개인고객부 담당자는 "이번 외국통화 세뱃돈 세트는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각국의 다양한 화폐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게 하고 글로벌 마인드의 고취 등 교육적 효과까지 수반하는 특별한 선물세트"라며 "세뱃돈을 준비중인 고객에게는 이색적이고 의미 있는 상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사 카드나 상품을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세뱃돈과 순금을 주기도 한다.

전북은행은 18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가맹점에서 JB카드를 사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사용금액에 따라 최대 3만원까지 캐시백을 지급한다.

또 백화점과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에서도 JB카드 사용 시 10만원당 현금으로 1만원씩 3만원 한도로 세뱃돈을 준다. 아울러 모든 가맹점에서 최대 5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도 실시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이번 설 이벤트를 통해 고객에게 JB카드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내 고객에게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전했다.

BS금융그룹 부산은행은 스마트뱅킹과 인터넷뱅킹, 폰뱅킹 적금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순익환향'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는 설명절을 앞두고 고향길에 금의환향하라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부산은행은 적금에 가입한 고객 15명을 추첨해 순금(각 9.9g) 반지(한 돈)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권 교환을 미리 하지 못했거나 대출 이자 납부 등 금융 업무가 필요한 고객들을 위한 이동점포도 있다.

NH농협은행은 설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고객을 위해 이동점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점포란 단말기와 자동화기기를 탑재한 차량으로 장소를 이동하면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임시영업점이다.

고객은 오는 17일부터 양일간 이동점포를 통해 신권교환과 현금입출금, 통장정리, 계좌이체 등 각종 금융서비스를 일반점포와 똑같이 이용할 수 있다.

점포는 망향휴게소(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와 이천휴게소(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에 설치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은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화성휴게소에서 설 연휴를 맞아 이동점포인 '뱅버드'를 운영한다.

뱅버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고객은 신권교환 외에도 예금상담과 통장정리 등의 업무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은 신권을 담을 수 있는 설날 세뱃돈 봉투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금고를 대여해주기도 한다. 경남은행은 오는 26일까지 보호예수를 신청한 고객에게 대여금고를 무료로 빌려준다.

또 17일 전 영업점과 지역 내 일부 전통시장을 찾은 고객과 귀성객 등에 한해 설날맞이 고객사은품(물티슈와 위킹젓가락 등) 5000개도 나눠준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고향을 오가는 귀성객들이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풍성하게 즐기기를 바란다"며 "설 맞이 귀성객 서비스에 대한 많은 이용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미선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건설사 분양 '눈치 작전'

상반기에 물량 집중

올해 국내 분양 시장은 지난해의 열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주요 건설사들은 지난해보다 많은 물량을 준비하며 분양시기를 놓고 눈치싸움을 벌이는 중이다.

12일 대한주택건설협회 조사에 따르면 올해 전국적으로 336개 업체가 총 15만3696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72% 증가한 수치로 수도권에 절반이 넘는 7만8611가구가 집중됐다.

주요 건설사들은 상반기에 재개발 지역과 경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물량을 투입해 분양 실적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업계에서는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되는 성수기 3월부터 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1순위 자격 요건이 완화 돼 청약에 나서려는 수요자들이 크게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때 건설사들은 적절한 분양시기를 놓고 고심하는 모습이다.

올해 3만1000여가구를 공급 계획 중인 대우건설은 확정된 1만여 가구에 대한 공급 일정만 공개한 상태다. 사업 확정이 유력하지만 최종 사인을 남겨둔 건들이 대부분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일정이나 세부 사항이 공개되는 것은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쪽에서 꺼려하는 눈치"라며 "협약 완료 직전인 것부터 협약 중인 건 등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수도권에만 약2만 가구가 공급되며 지방과의 비율은 6대4 정도"라며 "상반기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중심의 분양이 진행된다. 지방은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위주"라고 밝혔다.

대림산업의 경우 올해 1만7154가구를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3월 용인 수지지역에 1517가구를 시작으로 상반기에만 1만1000여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 7600여가구가 서울, 경기에서 분양된다.

이와 관련해 현대엔지니어링의 한 관계자는 "상반기에 수도권 쪽으로 분양이 몰려있고 점차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며 "서울, 광교, 기흥, 천안, 부산 등 순으로 분양이 예정돼 있는데 상반기 수도권 분위기를 살펴보고 뒤 일정을 조율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학철기자 kimc0514@

한국은행 설 자금 방출 한국은행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본점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기업과 가계의 자금 부족 해소를 위한 자금을 방출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힐스테이트 서산' 3월 분양

충남 서산에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처음으로 들어선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서산 테크노밸리 A4블록에 공동주택사업인 '힐스테이트 서산' 아파트를 3월 중 분양한다고 12일 밝혔다.

아파트는 지하3층~지상24층 13개동 총892가구 규모며 전 가구 전용면적 75㎡와 84㎡로 구성된다. 주택형별로는 ▲전용 75㎡타입 280가구 ▲전용 84㎡A타입 232가구 ▲전용 84㎡B타입 380가구 등으로 서산 테크노밸리 내 분양되는 단지 중 단일 브랜드로는 최대규모다.

전가구에 팬트리룸이 제공되고 전용 84㎡B타입을 제외한 모든 가구에는 4bay설계를 적용했다. 전용 84㎡A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부분임대를 서산시 최초로 도입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 테크노밸리는 서산시 최초 자급자족형 첨단복합도시로 한화케미칼 등의 대기업은 포함 300여개의 기업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석원 힐스테이트 서산 분양소장은 "커뮤니티시설, 내부설계, 디자인 등 브랜드에 걸맞는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라며 "설속 평면과 판상형 4bay 위주로 구성을 한 만큼 서산지역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에 많이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서산시 예천동 1255-1에 있고 입주는 2017년 9월 예정이다. /김학철기자

겨울을 녹이는
한잔의
부드러움
처음처럼
17.5도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증권사 호실적 올해도 이어갈까?

작년 실적 '선방'… 올해 업황 불투명

증권사들이 올해도 호실적을 이어갈까. 극심한 불황을 겪었던 증권사들이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하거나 큰 폭의 영업이익을 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58개 증권사의 당기순이익 총합이 1조7032억원으로 전년(2592억원)보다 557% 늘었다. 이는 2조212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나타낸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4.1%로 전년도보다 3.5%포인트 올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가 하락하면서 채권관련 자기매매 이익이 늘어 수익성 개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채권 관련 자기매매 이익은 6조1584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2조1513억원(53.6%) 뛰어올랐다. 덕분에 헤지 등으로 인한 파생관련 손실 1조4604억원, 주식관련 손실 1280억원을 상쇄했다. 전체 자기매매 이익도 전년도보다 12% 늘었다. 특히 흑자를 낸 상위 3개 증권사는 KDB대우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모두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회사였다.

앞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 2.50%였던 금리는 2.00%까지 내려갔다. 이처럼 금리가 낮아질수록 증권사들이 보유한 채권가격은 올라가고, 이에 따른 평가 이익은 늘어나게 된다.

문제는 올해부터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실적 회복세는 올해 1분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라며 "다만 지난해와 같이 높은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할 지는 미지수"라고 진단했다.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은데다 과당경쟁으로 인한 수수료 수익도 이전 같지 않다는 것. 특히 올해는 미국이 달러 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정부규제 완화도 제한적이어서 업황이 좋지 않을 것이란 분석까지 나온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내놨지만,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장효선 삼성증권 연구원은 "올해는 금리 급락 가능성이 낮다"면서 "하루 평균 거래대금 증가가 예전처럼 증권사 실적 증대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나마 올해 출발은 순조로운 편이다. 지난달 주요 증권사들이 월간 기준으로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양호한 실적을 냈다.

정길원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주요 증권사의 1월 실적은 서프라이즈"라며 증권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으로 '비중확대'를 유지, 최선호주로 삼성증권, 키움증권, 한국금융지주를 각각 유지했다.

정 연구원은 "중소형주 거래 증가와 신규상장 주식의 잔여 효과, 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1월 일평균 거래대금은 7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7% 늘었다"며 "브로커리지(위탁매매) 부문의 수익이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김은지기자 eun@metroseoul.co.kr

1월 아파트 경매 뜨거웠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찰 경쟁률이 2000년 이후 1월 기준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12일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1월 전국 아파트 입찰경쟁률은 7.45대 1을 기록했다. 입찰에 참여한 사람이 전월(6.77대 1)에 비해서는 0.68명, 전년 같은 달(7.05대 1)에 비해서는 0.4명 늘어난 것이다.

이는 이 회사가 통계자료 구축을 시작한 200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이전 최고점은 2011년 1월의 7.31대 1이었다.

이처럼 입찰경쟁률이 높아진 이유로는 아파트 경매물건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여전히 5000명이 넘는 입찰자들이 전국 법원을 찾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월 전국 아파트 경매진행 건수는 2768건으로 처음으로 3000건을 밑돌았다. 1월 기준 전국 아파트 경매진행 건수는 2010년 5815건을 기록한 이후 2012년 4616건, 2014년 3988건 순으로 5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치열해진 입찰경쟁률을 반영하듯 지난달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 역시 1월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월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은 87.83%로 지난해 1월(83.32%) 대비 4.51%포인트 상승했고, 이전 최고점인 2002년(87.75%)보다도 0.08%포인트 높았다.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전세물건이 줄어든 상황에서 전세난 여파로 내 집 마련을 위해 경매 법원을 찾는 사람들은 꾸준한 상황"이라며 "당분간 입찰경쟁률과 낙찰가율은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선옥기자 psoq@metroseoul.co.kr

2015 설맞이 떡국 나눔

롯데카드, 떡국 나눔 봉사 롯데카드는 12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장애인사랑나눔의집을 찾아 소외된 이웃에게 떡국을 대접하는 '새해 떡국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롯데카드 채정병 대표가 떡국을 대접하고 있다. /롯데카드 제공

그리스·EU 채무협상 합의 실패

16일 재논의하기로

그리스와 유로존 19개국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이 11일(현지시간) 재무협상 긴급회의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AP통신은 그리스와 유로그룹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긴급회의를 열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네덜란드 재무장관인 예룬 데이셀블룸 유로그룹 의장은 "앞으로 며칠간 이뤄질 논의에 대해 의견 일치를 이루고 다음 회의가 열리는 16일까지 진전을 이뤄내고 싶었으나 불행히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서 "16일 다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기존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연장 여부가 논의됐고 일부 국가들은 연장을 선호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리스는 16일 열리는 다음 회의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니스 바루파키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우리는 아주 건설적이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됐다. 이것이 주된 성과"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달 28일 종료되는 기존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연장할 생각은 없다는 뜻을 강조했다.

AP통신에 따르면 16일 회의에서도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요한 반 오버트벨트 벨기에 재무장관은 "(논의에) 중심을 잡기 어려웠고 (앞으로도) 어려운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기기자

"다음카카오, 성장 잠재력으로 주가 상승"

다음카카오의 주가가 실적 발표 후 약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다음카카오가 성장 잠재력을 통해 지속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카카오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2014년 4분기 매출 2540억원, 영업이익 657억원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21%, 71% 증가한 수치다.

2014년 연매출은 8984억원, 영업이익은 2092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21%, 42% 증가하는 등 선전을 보였다.

인터넷 포털인 다음과 SNS 기업인 카카오가 지난해 10월 합친 후 '공룡 포털'에 시달릴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한 분기 만에 모바일 기업으로 위상을 확립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주가는 약세를 보였다.

다음카카오는 실적 발표 직후인 장 초반 소폭 상승했지만 결국 전일 대비 1.63% 내린 14만5200원에 장을 마쳤다.

다음카카오는 3개월래 최저점(2014년 12월 12일)으로 떨어지다 한 달 만에 16만원(1월 26일 종가)으로 최고점을 회복하는 등 상승세를 보여왔다.

일각에서는 다음카카오가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배당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것이 주가 하락을 불러왔다고 보았다.

같은 날 최세훈 다음카카오 대표이사는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올해부터 향후 2년간은 지난해보다 배당 수준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다음카카오의 주가 하락에 대해 "정체된 장세가 다음카카오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음카카오의 주가가 꾸준히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실적을 통해 다음카카오가 생활 모바일 플랫폼의 강자임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다음카카오는 특히 모바일 서비스 부분에서 선전하고 있다.

연매출 기준으로 모바일 비중이 49%를 차지했다.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모바일 광고와 커머스 매출이 각각 15%, 171% 급증했다.

다음카카오가 올해 공격적인 투자와 사업전개를 선포하면서 성장 여력은 더욱 커질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다음카카오는 정부의 핀테크 정책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KDB대우증권 김창권 연구원은 정부의 핀테크 육성 정책 최대 수혜자로 다음카카오를 지목했다.

김 연구원은 "최근 정부는 핀테크 육성 의지가 크고 다음카카오는 카카오 페이, 뱅크월렛카카오 등으로 핀테크 시장의 흐름을 선점하고 있어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신가영기자 sgy@

구본무 회장 '혁신' 리더십…G3 신화 잇는다

G3 탄력으로 '1등 LG'까지

구본무(사진) LG그룹 회장이 임직원들에게 "고객 눈높이에 맞춘 혁신"을 강조했다.

구본무 회장은 11일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LG 혁신한마당'에서 "산업간 경계를 허무는 창의적 발상으로 한 차원 높은 수준의 혁신을 전개해 나가자"며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남다른 집념으로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만드는 것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구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혁신과 강력한 실행을 통한 '1등 LG'를 강조해 왔다. 지난해 출시된 스마트폰 'G3'는 구 회장의 혁신을 반영한 제품으로 올해 프리미엄급 스마트폰 가운데 첫 번 밀리언 셀러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G3의 선전에 힘입어 LG전자는 지난해에 2013년 대비 24% 증가한 5910만대의 스마트폰을 판매했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매출액 기준 점유율 3위를 기록했다. 구 회장의 혁신의 리더십이 빛을 발한 것이다.

이날 LG혁신한마당의 하이라이트인 최고의 혁신상인 '1등LG상'에는 ▲LG전자 전략 스마트폰 G3와 ▲LG이노텍 '카메라 모듈 수율 혁신'의 2개 부문이 선정됐다.

특히 LG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G3는 5.5인치 쿼드HD 디스플레이를 세계 최초로 적용해 초고화질을 구현했다. 레이저 오토 포커스로 빠르게 초점을 잡는 카메라와 노크 코드 등 고객 편의성을 높인 사용자 경험(UX), 유선형의 그립감 등 차별화된 성능과 디자인을 내세워, 역대 최다인 170여개 통신사에서 출시됐다.

LG이노텍은 카메라 모듈의 개발 시작단계부터 제품 완성도를 높이는 조기 수율 혁신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카메라 모듈은 생산 과정에서 종종 머리카락 500분의 1에 불과한 1㎛ 수준의 먼지만으로도 불량이 발생할 수 있기에 신공법을 도입해 수율 향상의 가장 큰 걸림돌인 이물 오염을 원천 차단했다. 개발자부터 생산라인 담당자까지 전원이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즉시 개선하며 완벽 품질 수준으로 올라섰다.

이와 함께 '우수상'에는 ▲LG디스플레이 'UHD TV 패널' ▲LG생활건강 궁중화장품 '후' ▲LG유플러스 '비디오 LTE' 등 8개 부문이 선정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구 회장을 비롯해 강유식 LG경영개발원 부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등 최고경영진 30여명을 포함한 임직원 170여명이 참석했다.

/채성오기자 yoon@metroseoul.co.kr

"폰+패션 아이템 결합" LG전자가 3일부터 한 달간 삼성동 코엑스몰에 위치한 '바인드(BIND)' 매장에서 'G 플렉스2' 복합 체험존 '아티스트 존(Artist Zone)'을 오픈했다. LG 모델이 'G 플렉스2'를 손에 들고 패션 아이템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LG전자 제공

LG전자 냉장고·세탁기 이어 오븐도 친환경

미국서 인증 획득

LG전자는 프리미엄급 조리기기인 '더블 오븐레인지' 2종에 대해 미국가전제조사협회(AHAM)로부터 '지속가능성 인증'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LG전자는 2012년 냉장고, 2013년 세탁기 분야에서도 이 인증을 받았다.

미국가전제조사협회는 소비자들에게 친환경 제품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2012년 '지속가능성 인증'을 도입했다. 협회가 지정한 규격인증기관은 원자재 사용, 생산과 제조관리, 사용 중 에너지 소비량, 기술혁신, 사용 편의성, 폐기관리 등 모든 과정에 걸쳐 환경 영향을 조사하고 심의한 뒤 해당 요건을 만족한 제품에 한해 이 인증을 부여한다. LG전자는 지정 규격인증기관인 캐나다규격협회(CSA)를 통해 조리기기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인정받았다.

LG전자 프리미엄급 조리기기인 더블 오븐레인지 2종(모델명: LDG4315S, LDE3037ST)이 미국가전제조사협회로부터 '지속가능성 인증'을 11일 받았다. LG전자 어플라이언스 미국법인 HA담당(왼쪽)이 인증을 받은 제품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제품은 상하 2개의 조리공간을 적용한 고성능 대용량 제품(전기식/가스식)으로 동시에 2가지 메뉴를 조리할 수 있다. 손쉬운 세척을 위해 오븐 내부에 LG전자가 자체 개발한 특수 소재를 사용하고 '이지클린' 기능을 적용했다. 내부 표면에 물을 뿌린 상태에서 이지클린 버튼을 누르면 20분간 가열된다. 이후 사용자가 행주로 내부 표면을 닦아내면 세척이 끝난다.

이 제품은 미국가전협회(CEA)와 미국산업디자인협회(IDSA)로부터 기술과 디자인을 인정받아 'CES 혁신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성준기자

뷰티·바이오 기업 육성 LG '아낌없는 지원'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충북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조성에 적극 동참해 뷰티·바이오·에너지 분야 중소·벤처기업과의 상생협력에 앞장서고 있다. LG는 지역 특성과 그룹 계열사의 사업 내용을 고려해 충북을 뷰티·바이오·에너지의 메카로 만든다는 목표다. 충북은 100여개 이상의 화장품 업체와 1400여개의 친환경 기술 및 설비 기업들이 밀집해 있다.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생명과학단지 등의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바이오 산업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특허' 개방이다. 중소·벤처기업이 특허 부담으로 인해 신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정부의 의견에 LG가 화답한 것이다. 구 회장은 4일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LG가 가진 지식재산을 중소·벤처기업과 창업에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특허지원 창구인 'IP 서포트존(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을 통해 LG 보유 특허 2만7000여건, 16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특허 1600여건 등 총 2만8600건의 특허를 무료 또는 최소 비용으로 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공개된 특허는 뷰티·바이오·에너지는 물론 전자·화학·통신 분야까지 포함하며 이 중 LG는 3000여건의 특허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는 단일 기관 중 최대 규모다.

이와 함께 특허청의 도움을 받아 중소·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양질의 특허로 권리화하고 로열티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기술력에 대기업의 특허가 접목된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주름 개선 등의 효능이 확인됐으나 실제 화장품으로 적용하기 어려웠던 성분들의 특허 7개를 건강 미용 관련 바이오 기업 엠에이치투바이오케미칼에 무상 지원키로 했다. 이외 사내 어디에도 무상 개방한다. LG는 충북지역의 제로에너지 및 뷰티·바이오 분야에 향후 3년간 총 1조6000억원을 투자해 상생협력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장혜진기자 hjjang@

현대제철 선물 나눔행사

현대제철은 사업장 소재지인 인천, 포항, 당진, 순천, 서울 지역 주민들을 직접 방문해 선물 나눔 행사를 했다고 12일 전했다.

현대제철 임직원들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소외계층 1200세대를 직접 방문해 제수용품이 들어있는 명절 선물 세트를 전달했다.

현대제철측은 또 홀로 지내는 어르신 댁을 방문해 적적함을 달래드렸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총 400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사업장 내 48개 기관에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현대제철은 선제 명절마다 이웃을 찾아 선물을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으며 현재까지 2만3787세대에 선물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양소리기자 lovesund@

개혁 드라이브 거는 이재용 부회장

기업 구조 재편 수익 창출 극대화　비주력 사업 과감히 정리

'1등 아니면 정리'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익성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성장성 있는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는 구조개편을 통한 체질 개선에 나섰다. 이 부회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무거워진 삼성의 몸집을 빠른판단과 기동성 있는 재편으로 체질을 바꾸기 위해 혁신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뭐든지 1등이 되라'고 외쳤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카리스마를 이어 받은 듯 차세대 삼성을 이끌 리더로서의 면모를 거침없이 나타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5월 급성 심근 경색으로 쓰러져 입원한 이 회장을 대신해 9개월째 삼성을 이끌고 있다. 최근 비주력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주력 사업은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사업구조를 재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화와 빅딜로 삼성테크윈, 삼성토탈, 삼성탈레스, 삼성종합화학 등 4개사에 매각을 결정한 데 이어 지난 10일 치과용 엑스레이 장비 전문 제조업체 '레이'를 매각했다.

레이는 치과용 엑스레이 선두업체로 성장해왔고 엑스레이 장비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 삼성전자가 전격 인수합병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지난 2011년, 2012년 손실 규모가 커지면서 매각을 결정했다. 결국 돈이 되는 고기술 고자본 의료기기 사업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이 부회장은 경영 실력이 부진한 금융회사들의 해외 법인에 대해서 주재원 감축과 통폐합을 비롯한 경영 합리화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계열사를 매각하거나 인원을 축소시키는 건 아니다.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고 있는 사물인터넷(IOT)과 의료기기 사업부

사는 서침없다. 삼성전자는 이미 지난해에만 10개 가량의 기업을 인수했다. 캐나다 모바일 클라우드 솔루션 전문업체인 프린터온, 미국의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개발업체인 스마트싱스, 시스템 에어컨 공조제품 유통업체인 콰이어트사이드 등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냉철한 분석과 과감한 선택에 내부의 반대 움직임도 있다. 현재 매각을 추진 중인 4개사 임직원들에 대한 노조의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M&A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현대중공업, KT 등 굴지의 대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통해 살기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며 "삼성도 흑자경영을 할 때 미래먹거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체력을 강화하는 재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삼성전자 기업용 아웃도어 AP 출시

삼성전자는 기업용 아웃도어 무선랜 AP(모델명 WEA453e·사진)를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AP(Access Point)란 유선랜과 연결해 무선랜(와이파이)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다.

앞서 보안 AP 등 총 9종의 실내형(인도어) AP를 출시한 삼성전자는 이번에 아웃도어 AP를 추가로 출시해 기업용 AP 풀라인업을 완성했다.

이 제품은 아웃도어 제품의 필수 조건인 방수, 방진 규격(IES-529 Standard)과 관련해 IP67 인증을 획득했다. IP67 등급은 먼지로부터 보호되는 것은 물론 1m 수심 이내의 물에 30분 동안 잠겨도 영향을 받지 않는 수준을 의미한다. 옥외용으로 제작됐지만 58㎜의 얇은 두께와 2.6㎏의 가벼운 무게 덕분에 설치가 쉬운 것도 장점이다.

또 아웃도어 AP 최초로 무선랜 보안기능이 탑재돼 실외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양성운기자

현대중공업, 작년 영업손실 3조2495억원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매출액 52조5824억원, 영업손실 3조2495억원, 당기순손실 2조2061억원의 실적을 냈다고 12일 공시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3.0% 줄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적자전환한 수치다.

4분기는 매출 13조8461억원, 영업손실 223억원, 당기순손실 37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6.5% 줄었지만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은 적자폭이 줄었다.

현대중공업 측은 "4분기에 공사손실충당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등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경영체질개선과 원가절감 노력, 수익성 위주의 선별적인 수주 전략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 추후 더 나은 실적 개선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범종기자

한국지엠이 드리는 행복한 설꾸러미 받으세요! 한국지엠 세르지오 호샤 사장(가운데)과 인천사회복지협의회 현향권 회장(오른쪽 세번째) 등 관계자들이 선물꾸러미를 들고 있다. 한국지엠한마음재단이 민족 전통 명절인 설을 맞아 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과 소외가정에 임직원들이 직접 만든 설 맞이 생필품 선물꾸러미 500세트를 전달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국지엠 제공

대우조선해양, 친환경 LNG선 1척 수주

대우조선해양은 일본 MOL사로부터 18만㎥급 친환경-차세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1척을 수주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길이 297.2m, 너비 46.4m 규모인 해당 선박은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건조돼 2018년까지 인도될 계획이다.

인도된 선박은 유럽 최대의 에너지 공급 기업인 독일 E.ON사에 장기 용선된다.

대우조선해양과 MOL은 등 현선 1척에 대한 옵션 계약도 체결했다.

용선주인 E.ON 측의 LNG 물량 운송수요를 고려하면 옵션 조항 또한 발효가 확실시 된다고 사측은 전했다. /이범종기자

삼성, '올해의 강소기업' 13곳 뽑아

삼성전자가 '2015 올해의 강소기업'으로 13개 협력사를 선정했다.

삼성전자는 12일 수원 삼성 디지털시티에서 권오현 대표이사 부회장, 최병석 삼성협력센터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 올해의 강소기업' 선정식을 개최했다.

'올해의 강소기업'은 협력사 중 잠재 기술역량을 보유하고 혁신 의지가 강한 기업을 선정한 뒤 각 사업 분야에서 세계 5위, 국내 2위 이내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삼성전자가 자금·기술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35개 후보사 중 글로벌스탠다드테크놀로지, 원익큐엔씨, KH바텍, 대진디엠피, 대덕GDS, 추성테크, 켐트로닉스, 뉴모텍, 우성정공, 케이엠디봉유, 플렉스컴 등 삼성전자 협력사 11개사와 풀텍, 우주일렉트로닉스 등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사 2개사가 '올해의 강소기업'에 선정됐다.

삼성전자는 이들 강소기업에 총 36.2억원의 자금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의 개발·구매·제조 분야별 내부 전문가와 외부 컨설턴트 60명을 파견해 혁신 DNA를 전수했다. 이 과정을 통해 제계 2위 4개사, 3위 1개사, 4위 1개사 등 '올해의 강소기업'들은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강소기업 후보사들을 포함해 현재까지 2251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말까지 총 50개의 강소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양성운기자

'3중고' 덫에 걸린 LG화학·롯데케미칼

탄소배출권·중국산 저가 제품 이어 화평법 파고까지…대책은

박진수 LG화학 부회장과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이 또 다시 장애물을 만났다. 국내 석유화학업계를 대표하는 두 회사는 지난해 저유가와 중국 저가 석화제품 대량생산으로 인해 저조한 실적을 냈다. 올해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두 기업의 장애물로 등장했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화학안전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평법과 화관법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들 법률은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관련오염 배출 시설의 전문기술심사를 까다롭게 요구해 산업계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LG화학·롯데케미칼 '지난해 영업익 직격탄'

LG화학의 지난해 4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5조3723억원으로 2013년 4분기보다 4.8% 줄었다. 영업이익은 2316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26.8% 감소했다. 지난해 전체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22조5778억원과 1조3108억원을 기록해 각각 2.4%, 24.8% 줄었다.

지난 10년간 꾸준한 매출 성장세를 보이던 롯데케미칼 역시 유가급락의 고비를 넘기지 못했다.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매출액 14조8590억원, 영업이익 350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6%, 28.1% 감소한 수치다. 저유가로 제품가격은 떨어지고 이로인해 영업이익도 급락했다.

◆박진수 부회장, '업계와 공동대응'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화평법'과 '화관법'은 LG화학과 롯데케미칼의 경영환경을 더욱 힘들게 할 것으로 보인다.

LG화학은 비롯해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등은 실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고 옥시감, 벤젠 등 사용 빈도가 높은 화학물질을 공동으로 등록할 예정이다.

이 협의체를 통해 기업들은 공동으로 해당 물질을 시험하고 평가해서 등록하게 된다. 또 취급 물질에 따른 비용 분담이나 유해성 자료 공유도 이뤄진다.

LG화학 관계자는 "화평법 화관법이 기업지원에서 새롭게 평가를 준비해야 하는 법은 아니다"면서 "석유화학협회지원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은 식물성 플라스틱 소재로 파고를 넘는다는 전략이다.

롯데케미칼은 '바이오플라스틱 원스톱 융합공정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 소재 중 하나인 고내열성 폴리유산(PLA-Poly Lactic Acid) 생산사업을 추진한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PLA 생산은 아직 실험단계"라며 "대량 생산에 성공할 경우 신설된 환경 규제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양소리기자 10sound@metroseoul.co.kr

"쏘나타 최대 160만원 할인"

현대자동차는 설을 맞아 국내 최다 판매 차종인 아반떼와 쏘나타를 사는 고객에게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아반떼는 기존 할인 조건 50만원에다 식만원의 혜택을 더해 총 100만원을 할인해주며, 할인 조건이 없던 쏘나타(하이브리드 모델 및 영업용 제외)는 30만원을 깎아준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 시행으로 기존 할인 조건을 비롯해 다양한 할인·판촉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아반떼는 최대 240만원, 쏘나타는 최대 160만원까지 할인 폭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김승호기자 fun@

현대·기아차 '설날 특별점검 서비스'

안전한 설 귀향길을 위해 현대·기아차가 특별점검 서비스에 나섰다. 현대·기아자동차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고객들의 안전한 설날 귀향길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설날 특별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현대차는 상행 8개, 하행 9개 총 17개 휴게소, 기아차는 상행 5개, 하행 7개 총 12개 휴게소에서 서비스코너를 운영한다.

귀향길인 하행 휴게소에서는 17일부터 18일까지, 귀경길인 상행 휴게소에서는 19일부터 20일까지 서비스 코너가 운영된다. 현대·기아차는 서비스 코너에서 고객차량 입고 시 배터리, 엔진, 미션, 타이어, 전구류 등 안전운행을 위한 필수기능들을 점검한다. 또 엔진오일, 브레이크오일 등 각종 오일류 보충과 와이퍼 블레이드 등 소모성 부품 무상교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현대·기아차는 설 명절 기간 동안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를 운영한다.

/김승호기자

SKT 설 연휴 '특별 소통 대책' 수립

직원 2073명 투입

SK텔레콤이 설 연휴를 맞이 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 특별소통 상황실을 운영한다. 기지국 용량을 증설하는 등 설 연휴를 맞이 급증하는 이동통신 트래픽 수용을 위한 '특별 소통 대책'을 수립, 관리를 위해 2073명의 직원을 투입한다.

SK텔레콤은 설 연휴가 실질적으로 시작된 17일 오후에 트래픽이 몰리며 시도호 기준으로 평일 대비 7.2%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LTE 데이터의 경우 설 당일인 19일 평일 대비 29.8%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설 당일 고속도로 국도 등 정체구간을 중심으로 평시 대비 500% 이상 트래픽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해당 지역의 시스템 용량을 평시 대비 최대 2~3배 추가 증설하고, 트래픽 분산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연휴기간 T맵 사용량이 평소 대비 99%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를 대비해 용량을 증설하고, 고속도로 나들목, 분기점 및 주요 휴게소 등 상습 병목 정체 구간 위주로 이동기지국을 운영한다.

/유선준기자 rnunun@

KT·코레일, 사물인터넷으로 안전 강화

KT와 코레일이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철도안전시스템을 혁신하는 작업에 나선다.

KT는 12일 서울 광화문빌딩 이스트에서 코레일과 IoT 기반 재난안전기술 및 고객 편의 서비스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두 회사는 철도시설물에 온도·진동센서, 비콘 등을 부착해 철도수송의 안전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재난 상황 때 피해자의 위치를 신속히 파악하고 경찰·소방 방재청 등과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재난안전 인프라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두 회사는 철도역사 내에 기가 비콘 단말기를 설치, 고객들이 스마트폰으로 철도요금을 자동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황창규 KT 회장은 "IoT를 활용한 첨단 기술력 기반의 사업 협력을 통해 KT와 코레일이 공동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준기자

에릭슨·SKT, 450메가 LTE 속도성공

면허 주파수와 비면허 주파수 대역을 통합해 최대속도 450Mbps는 구현 실제에서 스마트폰 사용자의 커버리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에릭슨은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15에서 LTE-U라고 불리우는 비면허 대역을 이용한 LTE 기술인 라이센스 지원 액세스(License Assisted Access, LAA)를 발표했다.

LAA는 비면허 주파수 대역을 활용해 모바일과 와이파이 기기 간 무선자원 할당 기능을 기반으로 한 와이파이 공존 기술을 제공한다. 본 기술은 퀄컴(Qualcomm Incorporated)의 자회사인 퀄컴 테크놀로지(Qualcomm Technologies Inc.)와 기술 협력을 통해 개발됐다.

또한 SK텔레콤을 비롯해 버라이즌, 티모바일과 같은 선도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고객들에게 최상의 네트워크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에릭슨과 공동으로 LAA 성능을 검증했다.

에릭슨의 LAA 기술은 기존의 와이파이 사용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5GHz 대역에서 시분할 무선자원 할당 기능을 기반으로 한 와이파이 공존 기술을 제공한다. 시분할 무선자원 할당 기능은 와이파이와 LTE 사용자들이 해당 주파수 대역을 나누어서 사용 간섭을 피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술이다.

/유선준기자

대한항공 흑자전환

작년 영업익 3950억원

대한항공은 지난해 매출액 11조9097억원, 영업이익 3950억원, 당기순손실 4578억원의 실적을 냈다고 12일 공시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0.5% 늘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했으며, 당기순손실은 13.4% 불어난 수치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영업이익은 유류비 등 비용절감과 효율성 확보 노력이 효과를 거둬 전년 대비 증가한 1529억원을 기록했다.

대한항공은 올해 스카이팀과 타항공사들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통해 구주, 미주노선의 이원수요 판매를 확대하는 한편, 장거리노선에 고효율 기재 운영 확대와 타이클래스 수요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지철기자 roman@

<인천국제공항>

롯데·신라·신세계 면세점 진검승부 이제부터

치열한 입찰 경쟁 탓 임대료 비싸 — 수익성 악화 우려도

연간 매출 2조원 규모인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의 새 주인이 된 호텔롯데와 호텔신라, 신세계 조선호텔의 진검승부가 시작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12일 발표한 제3기 면세사업권 입찰 결과 호텔롯데(4개 구역), 호텔신라(3개 구역), 신세계(1개 구역) 등 3곳이 선정됐다. 공사 측은 향수·화장품과 주류·담배, 피혁·패션 등 품목에 따라 총 4개 그룹으로 나눠 일반기업 구역(DF1~8구역)의 입찰을 실시했다.

호텔롯데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모든 품목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더구나 이번 입찰을 통해 가장 면적이 크고 비행기 탑승장에서 가까운 8권역(전 품목 판매 가능)까지 거머쥐면서 최상의 결과를 낳았다.

호텔신라의 영업면적은 기존에 비해 축소됐지만 기존 화장품 부문와 담배·주류 매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실리를 챙겼다는 분석이다. 특히 매출 비중이 25%에 불과했던 탑승동 부분을 떼어냈고 수익이 거의 나지 않던 루이비통 매장을 롯데로 넘겨 수익성은 되레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높다.

패션 잡화 사업권 한 구역을 얻은 신세계는 지난 2012년 파라다이스면세점(현 부산점)을 인수하면서 면세점 사업에 뛰어들었고 3년 만에 인천공항 입성에 성공하며 향후 성장동력을 확보했다.

이밖에 중소·중견기업 몫으로 배정된 4개 권역(9~12구역·중복 불가) 가운데 11구역 사업자로는 처음으로 면세점 사업에 뛰어 든 참존이 선정됐다. 나머지 9·10·12구역 등 총 3개 권역은 입찰 과정에서 '유찰' 사태가 벌어지면서 사업자 선정이 무산돼 다시 입찰 절차를 시작한다.

향후 이들의 임대료 문제는 여전히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업계 일각에선 벌써부터 인천공항면세점의 임대료가 비싸 이익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경쟁 과열에 따라 임대료 합계가 8000억~9000억원으로 지금보다 30~50% 올라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아직 임차료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인천국제공항 임차료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에서 수익성과 직결되는 문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치열했던 이번 입찰에서 이기기 위해 참여업체가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대료를 입찰가로 써냈다면 낙찰이 되더라도 당장 올해부터 적자를 걱정할 수도 있다"며 "앞으로 높은 임대료에 따른 수익성 확보가 관건이다. 진검승부는 이제부터"라고 설명했다.

/정보라기자 bora6693@metroseoul.co.kr

"발렌타인데이 흑백사진으로 추억 담아드려요" 신세계백화점은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13일부터 15일까지 모든 점포에서 연인·가족·친구 등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추억이 될 대형 흑백사진(가로 60cm X 세로 80cm)을 찍어주는 감성이벤트를 벌인다. /신세계백화점 제공

롯데쇼핑, 자사주 매입 통해 '책임경영' 강화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이사(60·사진)를 비롯한 주요 임원들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 책임경영 강화에 나섰다.

이원준 대표는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지난 9일 자사주 300주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이완신 마케팅부문장(전무)과 노윤철 신규사업부문장(상무) 역시 이날 공시를 통해 각각 300주, 200주 자사주 매입 사실을 공개했다.

회사 측은 "지난 5일 실적발표 이후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를 포함해 롯데백화점의 주요 임원들이 연이어 자사주를 사들이고 있는데 이는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의 책임경영 의지를 강하게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쇼핑의 주가는 11일 현재 23만8500원으로 지난해 말 27만3000원 대비 12.6% 하락했다. 롯데쇼핑은 올해 배당액을 주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확대해 주주의 이익을 제고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한편 롯데쇼핑은 올해 해외사업의 수익성과 국내 점포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그룹 계열사를 아우르는 옴니채널 전략으로 유통시장에서의 우위를 지켜간다는 계획이다.

김수경 롯데쇼핑 IR담당 상무는 "경영진의 책임경영과 실적개선에 대한 의지 표명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보라기자

'수미칩' 잘 나가네

국산 감자 6000t 추가 구매

농심이 국산 감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17일 선보인 '수미칩 허니머스타드'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감자 저장고가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농심은 국산 수미 감자 6000t을 추가 구매하기 위해 전국 20여 곳의 감자생산농가 조합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농심은 수미칩 허니머스타드의 수요를 고려해 올해 감자 구매량을 지난해 2만t에서 30% 늘어난 2만6000t으로 늘렸다.

이 물량은 서울 가락시장에서 한달 동안 거래되는 양에 육박하는 것이다. 농심은 "구매계약을 체결한 6000t 중 4000t은 이미 아산공장 감자저장고에 입고됐으며 나머지 물량도 이달 안으로 구매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미칩 허니머스타드는 출시 2개월 가까이 약 700만개가 팔려 16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출시 첫 달부터 360만개 판매라는 농심 스낵 역사상 최초이자 최고 기록을 올리며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수미칩 허니머스타드는 24시간 생산체제 아래 매일 전국 유통망에 공급되며 매장 진열과 동시에 대부분 하루 이틀 새 전량 판매되고 있다고 농심 측은 설명했다. 농심 측은 "아산공장 수미칩 라인을 풀가동 중이지만 지금도 각 유통채널에서 요구하는 물량을 완전히 소화하지 못할 만큼 생산량보다 수요가 많다"고 밝혔다.

농심은 수미칩 오리지널과 어니언, 허니머스타드에 칠리맛과 치즈맛 등의 제품라인업을 강화해 소비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국산 감자의 사용량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박지원기자

롯데리아, 버거·디저트 가격 3% 인상

롯데리아는 오는 16일부터 버거와 디저트 제품 판매 가격을 평균 3% 인상한다고 12일 밝혔다.

버거류 14종과 디저트류 8종의 가격이 100~300원 오른다.

대표 제품인 불고기버거와 새우버거가 각각 3300원에서 3400원으로 된다.

외식업의 전반적인 불황에도 원자재 가격, 인건비, 임차료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불가피하게 가격을 올렸다고 롯데리아는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수입 원재료의 수요·공급 불균형 등 경제적 요인이 있어 고객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달콤하고 고소한 '돌풍감자 허니치즈맛'

크라운제과는 달콤한 허니와 블루치즈의 고소한 맛을 더한 '돌풍감자 허니치즈맛'을 출시했다.

명동·대학로 이태원 등지에서 유명한 길거리 간식 '회오리 감자'의 맛과 모양을 구현한 감자스낵에 꿀과 블루치즈 풍미를 더한 제품이다. 가격은 1500원(75g).

설 성수품, 전통시장이 가장 저렴

백화점과 전통시장의 설 성수품 판매가격 차이가 최대 3배에 달하는 등 판매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55개 판매점에서 파는 설 성수품 26개 품목의 판매가격(4인 가족 기준)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이 백화점보다 평균 35.6%, 대형마트보다는 평균 17.3% 저렴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26개 품목의 유통업태 간 최고·최저 가격 차이는 평균 1.69배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개별 제품별로는 약과(3.0배)의 가격 차이가 가장 크고 이어 배(2.22배)·쇠고기(장국용 양지 2.11배)·무(2.08배)·도라지(2.04배)·밤(2.03배)·유과(2.01배)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설을 앞두고 1차(1월 29일)·2차(2월 5일)로 나누어 설 성수품의 판매가격 등락률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은 평균 1.67%, 백화점은 평균 1.62% 상승했고 대형마트는 평균 1.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가격이 상승한 품목은 백화점에서는 배(21.5%)·사과(19.6%)·햄마(14.1%), 대형마트는 대파(18.4%)·동태살(7.5%)·무(6.7%), 전통시장은 고사리(42.4%)·밤(25.9%) 등이다. 반면 가격이 하락한 품목은 백화점의 경우 돼지고기(18.7%)·식용유(17.0%)·조기(13.0%), 대형마트에서는 돼지고기(14.6%)·약과(11.6%)·계란(10.6%), 전통시장에서는 시금치(20.4%)·대파(5.5%)·돼지고기(5.0%)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공공 가격정보 포털사이트인 '참가격'의 성수품 가격정보를 사전에 비교해 본 후 내 지역 최저가 매장 및 할인행사 정보 등을 활용해 설 성수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보라기자 [illegible]

미세모 제품 고객에 통했다

LG생활건강, 칫솔시장 점유율 1위 행진

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이 지난해 연간 1700억원 규모의 칫솔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며 국내 생활용품 1위 기업 위상을 공고히 했다.

LG생활건강은 지난해 연간 실적 집계 결과(이하 닐슨 데이터 기준) 지난해 보다 1.2%p 증가한 27.9%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P&G(21.6%), 애경(15.7%), 아모레퍼시픽(15.6%) 등과 6~12%p의 격차를 벌이며 1위를 차지했다.

LG생활건강은 지난 2013년 26.7%의 점유율로 P&G(24.7%)를 2%p 차이로 제치고 2007년 이후 6년 만에 점유율 1위 자리를 되찾은 바 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LG생활건강 측은 치아의 잇몸 틈새까지 양치할 수 있는 미세모 칫솔 제품 개발이 주효했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10년 전 칫솔 시장에서 약 10%에 불과했던 미세모 칫솔 비중은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해 2008년에 30%를 돌파했으며 지난해에는 50%까지 확대됐다.

LG생활건강은 칫솔모가 0.02mm 이하인 가늘고 정밀한 초극세모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개인의 잇몸 증상에 맞춰 페리오 센서티브, 페리오 스케일러, 죽염 칫솔, 페리오 360도 등 특화된 미세모 칫솔 제품을 잇따라 출시했다.

어린이 칫솔 매출 증가도 칫솔 시장 1위를 견인했다. LG생활건강은 "페리오 어린이 양치세트" 인기에 힘입어 칫솔 시장의 16%를 차지하는 어린이 칫솔 시장에서 지난해 30.2%의 시장점유율로 P&G(28.8%)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또 지난 2013년부터 모의 부드러움 정도와 기능에 따라 칫솔을 5단계로 분류한 BSI(Brush Stiffness Index·특허출원)를 도입해 소비자가 취향에 따라 칫솔을 고를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히는 등 고객 트렌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강보석 마케팅 담당자는 "최근 칫솔도 개인의 치아 모양과 건강 상태에 따라 골라서 사용하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며 "특히 미세모 칫솔은 치아 와 잇몸 사이 등 구석구석을 닦을 수 있고, 부드러운 사용감으로 잇몸 자극을 최소화해 민감한 잇몸과 시린 이를 가진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i0215@metroseoul.co.kr

식품업계, 스타 품은 CF로 어필

동아오츠카·맥도날드 새 광고 온에어

식품업계가 스타 모델을 기용한 TV CF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유명인을 통해 올해 주력 제품과 사업의 메시지를 소비자들에게 친근하게 전하고 있다.

최근 커피 사업 강화에 나선 맥도날드는 커피 브랜드 '맥카페'의 공식 모델인 배우 유아인이 출연하는 TV 광고를 14일부터 시작한다.

광고는 '즐거움이 필요한 순간, 맥카페 한 잔 하자'는 주제로 진행됐다. 배우 유아인이 "커피도 편하고 즐겁게 나만의 방식대로 즐기면 된다"고 제안하는 등 '편안 커피' 콘셉트를 강조했다.

동아오츠카는 13일 전현무와 강민경이 출연한 오로나민C의 TV 광고 '생기발랄' 편을 공개한다. '생기발랄 탄산드링크'란 캐치프라이즈를 내세우고 있는 오로나민C는 이번 광고에서 남자와 여자, 비서원과 운동선수, 청소년과 어린이 등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즐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홍관석 동아오츠카 오로나민C 팀장은 "올해 CF CM송, 샘플링 등 반복적인 노출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illegible]

아이오페 에어쿠션 판매 2000만개 돌파

아모레퍼시픽은 쿠션형 화운데이션인 '아이오페 에어쿠션'이 누적 판매량 2000만 개를 돌파했다고 12일 밝혔다.

회사 측은 "이는 국내 20세 이상 성인 여성 인구 2014만명에 가까운 수치"라며 "작년 판매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4초에 1개씩 판매되는 인기상품임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2008년 3월 출시된 아이오페 에어쿠션은 2013년 9월 판매량 1000만 개를 달성한 데 이어 작년 매출 2천억 원 돌파 기록을 세웠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이 지난달 20~50세 국내 여성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5%가 쿠션형 파운데이션 사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들 중 65%가 아이오페 에어쿠션을 써봤다고 답했다.

쿠션 하면 최초로 떠오르는 브랜드로도 아이오페(47% 중복 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고, 가장 선호하는 쿠션 제품으로도 아이오페 에어쿠션(38%)이 가장 많이 꼽혔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브랜드숍 글로벌 진출 잰걸음

미샤 서유럽, 이니스프리 태국 진출… 네이처리퍼블릭 홍콩 상장 계획

화장품 브랜드숍 업계가 올해도 글로벌 진출에 사활을 걸었다. 불황인데다 시장 포화로 국내에서는 더 이상 성장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가운데 일부는 새로운 국가 진출을 타진하고 있으며 아시아권을 비롯해 유럽 등으로 영토를 확장하는 모양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에이블씨엔씨의 미샤는 최근 독일 바이에른주 잉골슈타트에 1호점을 오픈했다. 서유럽 지역에 매장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글로벌 리서치 회사 네이터모니터에 따르면 독일 화장품 시장은 2013년 기준 151억8000만 달러(한화 약 16조 7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미샤는 가장 잘 팔리는 비비크림을 내세워 독일 시장을 공략하는 한편 독일을 거점으로 유럽 주요국가 추가 진출도 고려 중이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중국 매장 오픈을 준비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중국 시장 진출을 염두에 뒀으나 위생 허가 등을 이유로 오픈 시점이 늦어지고 있다. 중국은 해외 브랜드 화장품에 대해 성분을 일일이 따져보기 때문에 시장에 진입하기가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에 네이처리퍼블릭은 중국 진출의 교두보로 지난해 홍콩 시장에 먼저 진출하고, 중국 온라인 몰에도 입점했다. 아직 구체적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홍콩 상장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중국에서만 10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니스프리는 올해도 아시아권 진출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말레이시아에 첫 매장을 열었으며, 올해 태국 진출을 앞두고 있다.

한편 이 같은 해외 진출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가 워낙 포화된 상황이라서 브랜드숍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올해도 진출된 국가 내에 매장을 늘리거나 추가 신규 국가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男心 잡을 데이트룩 이렇게…

화사한 색감 코트·재킷 활용 패션 연출

해마다 찾아오는 발렌타인데이 시즌, 여성들은 로맨틱한 데이트를 기대하며 패션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된다. 특별한 데이트를 원한다면 사랑스러운 매력이 돋보이는 화사한 색감의 코트나 재킷을 활용해보자.

크로커다일레이디는 발렌타인데이와 잘 어울리는 화사한 색감의 코트를 선보였다. 여유로운 핏감으로 편안하면서도 멋스럽게 연출하기 좋은 아이템으로 캐시미어 소재를 사용해 착용감은 물론 보온성도 뛰어나다. 모노톤의 이너웨어를 착용하면 코트 하나만으로도 돋보이는 데이트 패션을 연출할 수 있다. 레드, 라이트베이지 2종의 색상 모두 얼굴이 밝아 보이는 사랑스러운 아이템이다.

여성스러운 색감이 돋보이는 하프코트도 데이트 패션에 활용하기 좋다. 쉬즈미스는 플랩포켓이 있는 심플한 모직 하프코트를 선보이고 있다. 테일러드 카라에 들어간 벨벳과 소매단으로 디테일을 살린 것이 특징이며 보온방 소재로 가볍고 부드러운 착용감을 느낄 수 있다.

/김수정기자

아버지에 간 기증한 효자

서울 세명컴퓨터고 한지훈 군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학생이 아버지를 위해 간을 기증해 감동을 주고 있다.

서울 세명컴퓨터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지훈(18·사진 오른쪽) 군은 지난달 자신의 간 70%를 아버지에게 이식하는 생체 간이식 수술을 받았다. 한 군의 아버지 한민섭(왼쪽)씨는 알코올성 간경변증과 간암으로 투병 중이었으며 상태가 나빠져 간 이식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김태헌 이대목동병원 간센터 교수와 간이식 전문의 홍근 교수로부터 간이식의 필요성을 들은 아버지 한씨는 뇌사자 간이식을 받을 상황이 아니어서 가족들로부터 장기를 기증받는 문제로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에 아버지의 투병과정을 지켜보던 아들 한군이 흔쾌히 간을 기증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한군의 기증자 검사 중 이상 소견이 발견됐고 의료진은 점막 관련 림프조직 종양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두 차례에 걸쳐 정밀 조직검사를 진행했다. 관련분야 전문

의들은 논의를 거쳐 한군을 먼저 시료키로 했으며 치료 후 간이식 수술을 진행했다.

한군은 "취업과 진학을 결정해야 하는 고3이라는 시기가 매우 중요하지만 아버지가 함께 있어야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기증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수술 후 한씨는 특별한 합병증 없이 회복됐으며 한군 역시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다.

/…기자

관광공사 '내나라여행박람회' 참가

문광부와 함께 '창조관광기업관' 운영

한국관광공사(사장 변추석)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함께 1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내나라여행박람회'에 참가한다.

관광공사는 상상 속 이벤 현실 속 기업을 만나다를 주제로 39개 우수 창조관광사업을 홍보하는 '창조관광기업관'을 준비했다. 또 기업별로 다채로운 체험과 전시, 이벤트존이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스마트 스탬프 랠리 프로그램이 진행돼 참관객이 자신의 스마트폰에 15개 이상의 기업 전자 스탬프를 받으면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지역의 오티브를 활용한 관광기념품 만들기, 정치전을 테마로 한 보드게임 등 다양한 놀거리가 가득하다.

강규상 관광공사 관광벤처팀장은 "새롭고 참의적인 우수 창조관광기업을 선발해 일반 소비자와 지자체 관계자들에게 체험을 통한 홍보와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부스를 마련했다. 아울러 다음 달에는 '제5회 창조관광사업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자

선물소포로 가득 찬 우체국! 11일 오전 서울광진우체국 직원들이 설날을 위해 선물소포를 구분하고 있다. 이날 서울광진우체국에는 평소 물량의 2배에 가까운 2만9000통의 선물소포가 몰려들었다. /서울지방우정청 제공

강강술래, 설 선물세트 택배주문 마감

오늘 오전 10시까지 주문 완료시 배송
졸업장 지참 고객은 냉면 2그릇 무료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풍격과 정성을 가득 담은 설 선물세트를 택배마감일인 오늘 오전 10시까지 전 매장과 온라인쇼핑몰(sullaimall.com),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100% 한우사골곰탕 대용량세트(800ml·5팩 15인분)는 3만8000원, 중용량세트(500ml·7팩 14인분) 3만6000원, 갈비맛 쇠고기육포세트(12봉) 5만1600원에 판매한다. 법성포에서 자연해풍에 3개월 이상 건조해 만든 국내산 보리굴비세트(10마리)도 11만원에 선보인다.

매장 인기메뉴인 한우불고기1호(1.5kg)는 6만원, 한우불고기2호(2.25kg)는 8만원, 술래양념1호(16대) 10만원, 술래실속2호(술래양념8대+한우불고기1.5kg)는 10만원, 한우실속2호(한우양념2대+한우불고기1.5kg) 14만원에 판매한다(한우 진심·명품 찜갈비세트 제외).

또 2월 말까지 전 매장에서는 졸업장(졸업증명서류)을 보여주면 냉면 2그릇을 서비스로 준다. 가족외식에 나선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말 동안 역삼점(왕양념갈비)과 서초 여의도점(왕양념갈비·한우모듬구이·한우광양불고기)에서는 해당 메뉴를 2인분 시키면 1인분을 추가 증정한다.

같은 기간 매장에서 백세주를 시킨 고객에게는 응모권을 1매씩 증정하며, 추첨을 통해 전통의 고급 제법으로 빚어낸 국순당 자양강장 세트(3만원)를 선물한다.

한편 이달 28일까지 홈페이지 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신도림 디큐브아트센터에서 공연되는 대작 뮤지컬 '로빈훗' 티켓, 상처받은 모발에 자신감과 행복을 주는 리시리 샴푸&헤어스칩, '가족이 건강해지는 사계절 해독밥상'과 '나는 세계 역사에서 비즈니스를 배웠다' 등 벌벗의 추천도서를 증정한다.

/…기자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 챙긴다

안전보건공단,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정부가 화학물질과 소음, 분진 등에 노출되는 소규모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과 '근로자 특수 건강진단'을 지원한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등 산업보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과 특수 건강진단을 위한 비용지원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규모사업장 사업주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업주가 작업환경 측정 비용 지원을 신청해 이를 실시하면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측정 비용의 70%가 지원된다. 또 신규 측정 사업장의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측정 비용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해 1·2차 검진을 완료하면 비용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받게 된다.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도 검진이 가능하다.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서 할 수 있으며 오는 27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지난해 공단의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모두 4721개이며 총 7만363명의 근로자가 검진을 받았다.

/…기자

서울가든호텔, 정성 가득 '설 패키지' 선봬

서울가든호텔은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가 모여 휴식과 오락을 즐길 수 있는 설 연휴 패키지를 준비했다.

이 패키지는 스탠다드 객실에 조식 2인과 12세 미만 어린이 1인 무료의 혜택으로 가격은 13만2000원이다. 이용객은 호텔 내 와이파이 무료 이용과 피트니스 클럽, 독서실, 비즈니스 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더불어 각 객실에는 개인 금고와 영자신문은 고객 요청시에 제공하고 투숙 기간 중에는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

서울가든호텔 관계자는 "35년동안 많은 관심을 주시는 고객님들 덕분에 리모델링 오픈과 함께 특1급 승격의 기쁨을 얻게 되었다"며 "특별한 날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드리기 위한 서울가든호텔의 패키지는 앞으로도 알차게 준비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자

NEXON

극적 타협 또는 예정된 결별

NCSOFT

넥슨·엔씨 경영권 분쟁…'새우등 터질라' 중소사 전전긍긍

극적 타협 또는 예정된 결별 수순. 우리나라 게임업계 1, 2위인 넥슨과 엔씨소프트의 경영권 분쟁을 바라보는 업계 전망이다. 다음달 27일 엔씨소프트 주주 총회를 앞두고 넥슨과 엔씨소프트의 신경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갈등이 봉합될 것이란 전망과 사업 결별을 위한 전초전이란 분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대형 게임사들의 싸움으로 애꿎은 중소 게임업계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김택진의 넥슨 지분 매수 유력

이번 경영권 다툼은 예정된 결별을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 많다. 특히 지분 문제가 관건인만큼 넥슨은 엔씨소프트 지분을 팔아 수익을 남기고, 엔씨소프트는 자사주를 블록딜 형식으로 우호 세력에게 넘기거나 김택진 대표가 사비를 들여 매입한다는 시나리오가 우세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넥슨이 경영권 분쟁을 명분으로 엔씨소프트 지분을 처분하고 사업 협력 관계도 청산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엔씨소프트가 넥슨에 사전 통보없이 김택진 대표 부인(윤송이)을 승진시킨 것뿐 아니라 사업면에서 매력이 떨어져 이번 일을 계기로 양사 파트너십이 끊어질 것이다. 그동안 넥슨 주주들 사이에서 엔씨소프트 지분 인수가 성과가 없어 불만이 많았다"고 말했다.

최찬석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김택진 대표가 19만~20만원 수준에서 블록딜을 통해 넥슨 지분을 매수할 것으로 보인다"며 "넥슨이 무리하게 엔씨소프트 경영권을 확보할 경우, 장기적으로 익계가 될 수 있다. 넥슨이 엔씨소프트 지분을 매각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다른 게임업계 관계자는 "김택진 대표와 김정주 대표의 관계는 학교 선후배로 많이 알려졌지만 사실 철저한 비즈니스 라이벌"이라며 "이해관계가 틀어진 이상 예전 관계로 돌아가기 힘들다. 이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갈라설 것"이라고 말했다.

넥슨과 엔씨소프트 경영권 분쟁이 주주총회를 기점으로 타협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이번 갈등이 적어도 파국으로 끝나진 않는다는 의미다.

공영규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게임회사 특성상 사람이 상당히 중요한 자산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전면적인 전쟁보다는 서로의 실리를 찾는 국면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며 "양사에게 원원 방향으로 마무리가 되면 주주 환원 정책 등이 다시 부각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번 분쟁이 엔씨소프트 이사회 임원진 임기가 끝나는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중론이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두 회사 모두 이미지를 중시하는 기업이고 추진력도 대단한 기업들"이라며 "경영권 다툼이 장기전으로 가지 않고 다음달 주주총회를 기점으로 일단락될 것이다. 길게 끌어봤자 서로 좋을 것이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넥슨과 엔씨소프트 경영권 분쟁의 결과를 떠나 중소 게임회사들의 근심은 깊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게임업계 1위를 다투는 회사들의 '밥그릇 싸움'이 업황 악화를 부채질한다는 이유다.

모 게임회사 관계자는 "넥슨과 엔씨소프트가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을 봤어야 했는데 이미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가뜩이나 안 좋은데 이번 경영권 다툼이 게임업계 혜택은 줄이고 규제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또다른 게임업계 관계자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형국이다. 게임업계는 올해 업황 개선을 기대했는데 연초부터 넥슨과 엔씨소프트 사건으로 그나마 있던 기대마저 꺾이게 됐다"고 전했다.

/김승호기자 unisus@metroseoul.co.kr

400여 출품작 총 1억원 지원

1주년 맞은 '힘내라! 게임인상'

400여 출품작, 65개의 톱리스트, 12개의 대상 작품, 9종 인프라 지원, 총 1억원 상금.

재단법인 게임인재단의 중소개발사 지원 프로그램 '힘내라! 게임人상'이 지난 1년간의 이같은 성과를 12일 공개했다.

2013년 1?월 19일 첫 접수를 시작한 '힘내라! 게임인상'은 총 8회에 걸쳐 12개의 대상 작품을 선정했다. 이들 중소 개발사에게 9종의 각종 인프라 지원과 총 1억원의 상금을 전달했다. 또 기간 중 400여 점의 작품이 출품돼 이 중 65개 게임이 최종 심사 톱 리스트에 올랐다.

수상작과 톱리스트 출신 작품들의 선전도 돋보였다.

2회차 대상 수상작인 눈보라의 저승사자 포 카카오(for Kakao)가 100만 내려받기를 기록하며 신생 개발사의 저력을 입증했다. 역시 2회차 톱4에 오른 레드사하라 스튜디오의 불멸의 전사 포 카카오(for Kakao)는 출시 이후 오랜 기간 구글 플레이 매출 순위 상위권에 오르며 현재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레드사하라는 지난해 6월 불멸의 전사 포 카카오(for Kakao)의 게임 수익 일부를 게임인재단에 기부하며 후배 중소 개발사들을 돕는데 나서기도 했다. 6회차 대상 수상작인 힐티잇테니스의 나인엠인터랙티브는 '네이버 한국투자 힘내라! 게임인 펀드' 제 1호 투자 대상으로 선정되는 기쁨도 누렸다.

남궁훈 게임인재단 이사장은 "지난 1년간 '힘내라! 게임인상'을 통해 중소 개발사들에게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며 "2015년에는 보다 많은 지원이 보다 많은 중소개발사들에게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국현기자

게이머들이 기부한 소방장갑 넷마블은 모바일 액션 RPG '몬스터 길들이기' 이용자들의 정성이 담긴 소방장갑 180켤레를 지난 11일 인천 서부소방서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 소방장갑은 '몬스터 길들이기' 오픈지역인 '화염'과 '용암'을 정복한 횟수에 따라 적립된 기부금으로 마련됐다. /넷마블 제공

해외로 눈돌린 게임사 잇단 환호

엔씨·넷마블·컴투스 사상 최대 실적

국내 대표 게임 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으로 기분 좋은 휘파람을 불고 있다.

10년 가까이 공략해온 해외시장에서 탐스러운 열매가 열리고 있다는 평가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리니지·아이온 등 MMORPG 개발사로 유명한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매출 8387억원, 영업이익 278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1%, 36% 증가한 수치다. 매출과 이익 모두 창사 이래 최대다. 특히 해외매출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북미·유럽에서 길드워2, 중국에서 블레이드앤소울의 성과가 커지면서 해외 매출액이 역대 최대 규모인 3400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로열티 매출은 전년 대비 107% 증가한 1363억 원에 달한다.

윤재수 엔씨소프트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창사 이래 최대 실적 달성과 동시에 국내외 매출의 다변화로 매출 안정성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대신증권은 28만원에서 32만원으로, NH투자증권은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엔씨소프트의 목표주가를 상향조정했다.

◆엔씨 목표주가도 줄줄이 상향

웹보드게임 규제 여파에도 불구하고 넷마블게임즈도 놀라운 실적을 거뒀다.

넷마블은 지난해 4분기 매출액 1734억원, 영업이익 43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4%, 90.3% 늘어난 수치다. 연간 기준으로도 넷마블은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다. 매출액은 5756억원, 영업이익은 1035억원에 달했다.

특히 해외 모바일 매출이 전년대비 223% 성장한 575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중국, 대만, 일본 등에서 로열티 매출이 늘어난 덕분으로 분석된다.

컴투스도 '글로벌'의 힘 덕분에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지난해 매출 2347억원, 영업이익 1012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각각 188%, 1209% 증가했다. 글로벌 시장에 내놓은 신작 '서머너즈워', '낚시의 신' 등 모바일 게임이 잇따라 대박을 터뜨리며 실적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10년 이상 해외 진출에 공을 들인 게임업체들이 국내의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다"며 "반면으로는 국내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하기 힘든 게임업체들이 살아남기 위해 해외에 집중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국현기자 lomi@

"첫 방송보고 괴로워 TV 끄고 난리"

엠넷 '언프리티 랩스타' 아이돌 래퍼 AOA 지민

"저도 보다가 괴로워서 TV를 껐어요."

엠넷 '언프리티 랩스타'에 당당히 도전장을 내민 걸그룹 AOA 지민(25)에 '랩을 잘 하리라' 기대하는 시청자는 거의 없었다. 함께 출연한 다른 여성 래퍼들 역시 "아이돌 래퍼가 이런 덴 왜 나오느냐"며 의아해했다. 하지만 지민은 방송 2회 만에 초반 실수를 만회하며 '반전 실력'을 뽐냈다.

◆ 반전 매력의 그녀

'언프리티 랩스타'는 여성 래퍼들이 '힙합 컴필레이션 앨범'의 트랙(수록곡)을 두고 경쟁을 펼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방송 초반 쟁쟁한 래퍼들 사이에서 지민은 그저 귀여운 아이돌처럼 보였다.

"처음 섭외 요청이 들어왔을 땐 고민이 컸어요. 쇼미더머니를 보면 잘 하는 분들이 작은 실수를 해도 큰 타격을 입는 걸 봤으니까요. 이제 겨우 AOA가 인지도를 쌓기 시작했는데 제 실수로 팀에 악영향을 끼칠까 걱정됐어요. 하지만 소속사 사장님이 고기를 사주시면서 '넌 원래 씩씩한 아이잖아'라며 북돋아 주신 덕분에 출연을 결심했죠."

'언프리티 랩스타' 래퍼들은 첫 만남에 스스로를 소개하는 '싸이퍼(한 비트에 여러 래퍼들이 돌아가며 랩 하는 것)'를 하게 됐다. 다들 당당했지만 침착하게 랩을 이어갔다. 그러나 지민은 한 소절만 내뱉고 "열심히 배우겠다"고만 말했다. 싸늘한 적막이 감돌았다.

"첫 방송은 멤버 유나랑 같이 봤는데 저도 보기 힘들더라고요. 음소거 하고, TV 끄고 난리치며 봤죠(웃음). 방송 끝나고 제 이름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하루 종일 올라가 있더라고요. 데뷔하고 처음이었어요. 다음 미션은 잘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했죠."

만회의 기회는 금방 찾아왔다. 실수를 하면 위축되게 마련이지만 지민에겐 해당되지 않았다. 지민은 같은 팀 래퍼들에게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지민은 이어진 개인 미션에서도 승승장구했다. 지민의 작사 능력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특히 라임(운율)과 펀치라인(언어유희)이 예상 외로 뛰어나 일각에선 가사 대필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연습생 때부터 꾸준히 가사를 썼어요. 다만 오로지 저에 대한 이야길 쓴 건 이번이 처음이었죠. 어렵지만 무척 재밌어요.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테니 지켜봐 주세요."

◆ 에픽하이부터 AOMG까지

지민은 중학생 시절 힙합에 푹 빠져 지냈다고 한다. 힙합 음악 팬이었던 친언니 덕분이었다. 당시 에픽하이 앨범을 끼고 살았다고 했다.

"고등학생이 되고 나선 컨트리 음악에 빠져서 기타를 배웠어요. 지금은 가리는 장르가 없어요. 최근엔 힙합 레이블 AOMG의 음악을 즐겨 듣고 있어요."

데뷔 첫 '실검'에 올라 깜짝 가사 직접 써 재미 있어요

서바이벌 프로그램 특성상 출연진들끼리 경쟁은 불가피하다. 촬영장 분위기가 험악할 것 같다는 추측에 그는 "전혀 그렇지 않다. 초반엔 서로 잘 몰라서 어색했는데 지금은 아주 친하다"고 단했다.

"거의 밤샘 촬영이라 안 돈독해질 수가 없어요. 관심 분야도 비슷해서 말도 잘 통하니 모이면 수다죠. 요즘엔 카톡방이랑 친해져서 거의 매일 통화해요. 얼마전 즉석 떡볶이를 먹으러 갔는데 둘이 똑같은 운동화를 신고 온 거예요. 커플운동화냐며 깔깔 거렸어요."

지민은 다른 래퍼들의 칭찬을 쉴 새 없이 했다. 그는 스스로의 장점으로 목소리를 꼽았다.

"목소리가 특이하다는 얘길 많이 들어요. 전 제 목소리가 좋아요. 촬영을 거듭할수록 출연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현장에서 보고 배우는 게 많고 자극도 받아요. 사실 연습생 시절의 치열함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는데 방송 덕분에 음악에 대한 욕심이 더 커졌어요. 방송이 끝나도 계속 열심히 해야죠."

/김지민기자 kimjk@metroseoul.co.kr

star bag

中영화 '헤밍웨이' 주인공

배우 한보름이 중국영화 '헤밍웨이' 여자 주인공 이리엔 역을 맡았다. '헤밍웨이'는 헤밍웨이와 같은 죽음을 꿈꾸는 40대 남자와 불치병을 앓고 있지만 명랑한 20대 여자가 사랑에 빠지게 되는 멜로물이다. 한보름은 '금나와라 뚝딱' '주군의 태양' '모던파머' 등에 꾸준히 활동했다.

콘서트 '플라워' 포스터 공개

JYJ 김준수가 단독 콘서트 '플라워' 포스터를 공개했다. 클래식 터치는 모습과 꽃 이미지를 조합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김준수는 다음달 3일 솔로 3집 '플라워'를 발매하고 일본 오사카를 시작으로 서울, 상해, 태국, 도쿄, 후쿠오카, 나고야에서 아시아 투어를 진행한다.

'열정 같은…'서 연예부 기자

배우 류현경이 영화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에서 고참 연예부 기자 공채은 역을 맡았다. 신입 도라희(박보영)의 선배인 그는 폭언을 뿜내며 매력을 발산할 예정이다.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는 내달 크랭크인해 올 하반기 개봉 예정이다.

'화정'서 차승원과 대립각

배우 한주완이 차승원과 대립한다. 4월 방송될 예정인 MBC 새 월화극 '화정'에서 강인우 역을 맡았다. 정명공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남자로 광해군(차승원)과 대립각을 세운다. 한주완은 지난해 KBS2 '조선총잡이'에 이어 자기적으로 '화정'을 선택함으로써 두 번째 사극 연기를 할 예정이다.

<배우 출신 예능인>

"차세대 '배능인' 우리도 있다"

손호준·이규한 예능서 존재감

손호준

손호준·이규한이 배우 출신 예능인 '배능인'으로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손호준은 금요일 밤을 책임진다. SBS '정글의 법칙 위드 프렌즈', tvN '삼시세끼-어촌편'에서 전혀 다른 매력으로 재미를 더한다. 친구인 그룹 B1A4 바로와 남태평양 틀라우로 떠난 손호준은 정글에서 동생을 돌보는 책임감 있는 상남자로 활약한다. 그러나 차승원·유해진 '대선배'들과의 어촌 생활에선 어리바리한 순수 청년으로 시청자를 애잔하게 만든다. 그러나 겹치기 출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대해 '정글의 법칙 위드 프렌즈' 이영준 PD는 "손호준은 아무 잘못이 없다"며 "손호준이 나온 '꽃보다 청춘'을 재미 있게 봤다. 바보처럼 나와서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정글에서 정말 잘했다. 리틀 김병만이다. 듬보인다"고 캐스팅에 만족했다.

이규한

이규한은 KBS2 '우리동네 예체능', MBC '나 혼자 산다', JTBC '학교 다녀왔습니다'에 출연 중이다. 연기에만 전념하던 이전 행보와 달라 눈길을 끈다. 그의 강점은 솔직함이다. 족구를 배워 경기를 하거나 싱글남의 생활을 공개하는 리얼 예능에 제격이라는 평가다. 특히 '학교 다녀왔습니다' 말(馬)학교에선 가수 강남과의 남남케미로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배우에게 예능 출연은 양날의 검이다. 웃기는 이미지로 각인되면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꽃보다할배', '삼시세끼'에서 '엄마'로 된 '찬승맘' 차승원은 배능인의 성공적인 사례다. 손호준과 이규한이 이서진, 송지효에 이어 예능을 영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전효진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상하이서 펼쳐진 비밀 암살작전!

최동훈 신작 촬영 종료

최동훈 감독의 신작 '암살'이 지난달 31일 중국 상하이와 한국을 오가며 진행한 5개월 동안의 촬영을 마치고 크랭크업했다.

'암살'은 1930년대 상하이와 경성을 배경으로 비밀 암살작전을 위해 모인 독립군과 임시정부요원, 청부살인업자 등 조국도 이름도 용서도 없는 이들의 끝을 예측할 수 없는 이야기를 담았다.

지난해 8월 27일 크랭크인해 대규모 오픈 세트 제작과 중국 상하이와 국내 각지를 오가는 치열한 일정 속에서 촬영을 진행했다. 지난달 31일 파주에서 진행된 마지막 촬영은 극중 하와이 피스톨 역의 하정우와 포마드 역의 오달수의 장면으로 긴장한 집중력 속에서 촬영을 진행해 5개월 동안 103회차의 대장정은 무사히 마무리했다.

최동훈 감독은 "'암살'은 지금껏 촬영했던 영화와 다른 작품이라 더욱 어렵기도 했고 무척 즐거웠다. 특히 이렇게 훌륭한 배우들과 작업할 수 있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한다"며 작품에 대한 애정을 나타냈다.

'암살'은 후반작업을 거쳐 올 여름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illegible]

김우빈 '찌질남' 어울릴까

청춘영화 '스물'로 스크린 컴백

배우 김우빈(사진)이 '찌질남'으로 변신한다.

김우빈은 3월 개봉 예정인 영화 '스물'(감독 이병헌)에서 인기만 많은 스무살 청춘 치호 역을 맡았다.

12일 오전 서울 CGV 압구정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이병헌 감독은 "현실감 있고 찌질한 모습을 그려야 했다. 그런데 배우들이 외적으로는 많은 걸 갖추고 있었다. 멋있어서 부적합하다는 생각도 있었다"며 "하지만 막상 만나보니 내적으로는 (찌질함이) 이미 있었다. 그래서 캐스팅하기에 충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우빈에 대해서는 "무거운 연기도 많이 했지만 실제 모습에는 귀여움과 장난기가 있었다. 그것을 가져다 내가 써먹고 싶었나. '잘 걸렸다' 싶었고 실제로도 잘 써먹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우빈은 자신의 스무살 시절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는 "당시 모델학과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행복했지만 캠퍼스 생활에 대한 낭만은 없었다. 동기들 사이의 술자리도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안 나갔다. 과제 준비하고 연습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스물'은 인기만 많은 치호(김우빈), 생활력만 강한 동우(이준호), 공부만 잘하는 경재(강하늘) 세 스무 살 청춘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힘내세요, 병헌씨'를 연출한 이병헌 감독의 첫 상업영화다.

/장병호기자 solanin@

휘성과 에일리의 '입맞춤'

듀엣곡 '키스' 발표…미디엄 템포 네오 소울 장르

가수 휘성과 에일리가 입을 맞췄다.

휘성은 에일리와 호흡을 맞춘 듀엣곡 '키스(KISS)'를 12일 정오 공개했다.

휘성이 지난해부터 선보이고 있는 듀엣 프로젝트 'WS 듀엣 프로젝트(WS DUET Project)'의 네 번째 곡이다. 앞서 휘성은 별·키와 '알아맞혀 사랑', 긱스와 '친구로 남아줄게', 솔리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을 발표했다.

이번 신곡 '키스'는 휘성이 작사하고 김대현이 작곡했다. 미디엄 템포의 네오 소울 곡으로 넘너간의 사랑 가득한 대화를 가사로 표현했다.

휘성과 에일리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두 사람의 소속사 YMC엔터테인먼트는 "휘성과 에일리는 2011년 MBC 추석특집 프로그램 '가수와 연습생'에 함께 출연해 이 서의 '마이 부(My Boo)'로 환상적인 컬래버레이션 무대로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며 "이후 에일리의 '헤븐', '노래가 늘었어' 등의 노래를 통해 프로듀서와 가수로서 좋은 호흡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김지민기자 [illegible]@

온라인 핫 이슈

강균성 '4차원 엉뚱남'

4인조 보컬 그룹 노을의 강균성(사진)이 뛰어난 유머감각으로 시청자를 사로잡았다.

강균성은 11일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 에 412회 '초콜릿 갤러리즈' 특집에 출연해 19금 노래와 각종 성대모사로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이날 강균성은 "이제까지 참 더럽게 살았다"며 최근 순결서약을 한 사실을 밝혔다. 이어 "첫 경험을 굉장히 늦게 했다"며 아슬아슬한 발언을 이어가 MC들을 긴장하게 했다.

또 노을의 전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의 박진영 대표부터 김경호, 김장훈 등의 성대모사를 선보였다.

시종일관 '예능감'을 뽐내던 강균성은 보컬 그룹 노을의 멤버답게 소찬휘의 '티어스(Tears)'를 완벽하게 소화해 감탄을 자아냈다. /각지민기자

용감한 NEWS

충격!

사동엽

알고보니,

궁금하면

특별 기자회견

용감한 기자들

100회 특집! 25일 수요일 밤 11시 E채널

EVENT 〈용감한 기자들〉 100회 방송 중 화면에 나오는 퀴즈를 맞혀주세요.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tcast

DRAMAcube FOX FOXlife FX

한화 이글스 올 시즌 화려한 비상 꿈꾼다

'야신' 김성근 감독 중심 '연봉킹' 김태균 등 혹독한 훈련 … "올해는 다를 것"

프로야구 만년 꼴찌 한화 이글스가 올 시즌 화려한 비상을 꿈꾸고 있다. 프로야구 최고연봉자 김태균(33)을 비롯해 정근우(33)·유창식(23)·최진행(30)·이용규(30)·송광민(32) 등 팀의 주축들이 그 어느 때보다 스프링캠프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는 '야신' 김성근(73) 감독이 있다.

1969년 마산상고 사령탑으로 시작된 김 감독의 46여 년 지도자 인생은 늘 도전의 연속이었다. 프로야구 원년인 82년 OB베어스 코치를 맡으며 프로와 인연을 맺은 뒤 태평양·삼성·쌍방울·LG·SK에 이어 한화까지 프로에서만 7개 구단을 거쳤다.

쉽게 타협할 줄 모르는 성격 탓에 구단 프런트와 갈등을 빚은 경우도 있었지만 야구만 생각하며 최선을 다했고 바닥에서 허우적대는 팀을 늘 정상에 올려놓았다. 프로팀 감독을 맡을 때도 그랬고 오갈 곳 없는 선수들을 모아 구성한 독립야구단 고양 원더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날 때부터 잘난 사람은 없다고 본다. 죽도록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뒤지게 마련이다.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생기고, 최선을 다하면 기회라는 녀석이 자주 찾아온다."

이 같은 인생관은 현장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감독의 역할은 선수들을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키는 것이라며 마지막 한 톨의 힘까지 쥐어짠다.

현재 한화 선수단은 일본 고치 시영구장에서 스프링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선수단의 하루는 오전 6시에 시작된다. 선발대가 먼저 숙소를 나서면 본진이 30~40분쯤 후에 합류한다. 본 훈련은 오전 7시 시작돼 쉼 없이 돌아간다.

정신없이 훈련을 하다보면 어느새 점심시간이지만 훈련이 길어져 점심을 생략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허겁지겁 뛰어야 한다.

지옥 같은 훈련에 한화 선수들은 요즘 정백전이 시작돼 행복하다고 한다. 공수가 바뀔 때 잠시 쉴 수 있기 때문이다.

오후 9시가 되면 모든 훈련이 끝나고 선수들은 숙소에 들어와 바로 곯아 떨어진다. 정근우는 "조금이라도 더 자기 위해 빨리 씻고 잠자리에 든다. 피곤에 잠을 뒤척이는 법도 없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지옥 훈련'에도 선수들은 불평 없이 김 감독을 믿고 따른다. 야신의 훈련에는 스타라고 예외가 없다. 묵묵히 그의 훈련을 따르다 보면 시즌에 들어서 성적으로 보답한다.

미국식 자율야구에 익숙한 용병들은 이런 훈련에 잘 적응하지 못하기 일쑤다. 그러나 김 감독은 "용병이라고 예외를 둬서는 안된다"며 얼마전 나이저 모건을 한국으로 돌려보냈다. 군기 빠진 용병에 대한 경고성 벌칙이다.

바짝 머리를 자르고 스프링캠프에 참가한 김태균은 "살면서 이렇게 훈련해보기는 처음"이라며 "하지만 선수단 모두 불평없이 감독님을 따르고 있다. 분위기는 최고"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올해 김태균은 프로야구 최고연봉자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성적으로 팀을 우승으로 이끌겠다는 각오다.

한화 투수 임경완을 지도하고 있는 김성근 감독

야구전문가들은 벌써 한화를 올 시즌 '다크호스'나 '변수가 있는 구단'으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만년 꼴찌에 겁들어져 있는 한화의 올 시즌이 기대된다.

/정은주기자 ejukim@metroseoul.co.kr

기성용 브로미치전 풀타임

열흘 쉬고 23일 맨유전 출격

잉글랜드 프로축구 스완지시티에서 활약하는 국가대표 미드필더 기성용(26)이 전·후반 90분을 모두 뛰었으나 팀 패배를 막지 못했다.

스완지시티는 12일(한국시간) 영국 웨스트브로미치에서 열린 2014-2015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25라운드 웨스트브로미치와의 원정경기에서 0-2로 졌다. 9승7무9패가 된 스완지시티는 20개 구단 가운데 9위 자리를 유지했다.

기성용은 선발로 출전해 경기가 끝날 때까지 뛰었으나 팀의 영패를 지켜봐야 했다. 8일 선덜랜드와의 경기에서 시즌 4호 골을 터뜨린 데 이어 두 경기 연속 득점을 노렸지만 무위에 그쳤다.

1월 호주 아시안컵에 출전한 뒤 곧바로 소속팀에 복귀한 기성용은 앞으로 10일간 경기가 없어 체력을 끌어올릴 시간을 갖게 됐다. 스완지시티는 23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한다.

한편 최근 2부리그 볼턴에서 프리미어리그 크리스털 팰리스로 이적한 이청용(27)은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에 결장했다. /유선준기자

4대륙 피겨선수권 목동서 열기

12일 서울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2015 ISU 4대륙 선수권대회 아이스댄스 쇼트 댄스에서 김레베카-키릴 미노프(러시아)가 멋진 연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즈 "기량 회복 후 돌아오겠다"

투어 잠정중단 선언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0·사진)가 기량이 만족할 수준에 오르기 전에는 대회에 출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즈는 12일(한국시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전에 얘기한 것처럼 최고의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을 때 대회에 출전할 것"이라며 "내가 준비됐다는 느낌이 들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투어 생활을 당분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우즈는 지난주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에서 허리 부상으로 기권했고 그 전주 대회였던 피닉스 오픈에서는 3라운드 진출에 실패했다. 우즈가 올해 목표로 세운 마스터스는 4월9일 개막할 예정이다. /김민준기자

프로야구 선수 평균연봉 1억1000만원

코칭스태프는 8900만원

2015 프로야구 KBO 정규시즌 개막이 45일 앞으로 다가왔다.

내달 28일 화려한 막을 올리는 'KBO 리그'는 막내 케이티 위즈가 가세해 10구단 체제로 치러지기 때문에 역대 최다 규모인 628명이 선수 등록을 마쳤다.

구단별로는 '야신' 김성근 감독이 부임한 한화가 95명을 등록해 가장 큰 규모를 자랑했다. 막내구단 케이티(80명)보다 15명이 더 많다.

신인과 외국인을 제외한 KBO 리그와 퓨처스리그(2군) 535명의 연봉 총액은 601억6900만원을 기록했다. 평균 연봉은 1억1247만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억1000만원 대에 진입했다.

억대 연봉 선수는 역대 최다인 140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 이어 한화 김태균이 15억원으로 최고 연봉선수로 기록됐다. 최정(SK)·장원준(두산)·강민호(롯데)가 10억원으로 공동 2위에 올랐다.

리그의 실질적인 연봉으로 볼 수 있는 구단별 연봉 상위 27명(외국인 선수 제외)의 평균 연봉은 1억9325만원으로 2억원에 육박했다.

10개 구단 코칭스태프 239명의 평균 연봉은 8918만원이었다. 삼성이 1억673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최하위는 7112만원을 기록한 롯데 자이언츠였다.

전체 선수단의 평균 연령은 지난해보다 0.3세 높아진 27.5세였다. 막내 케이티가 평균 26세로 가장 어렸다. 한화는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28세 이상을 기록했다.

올 시즌 최고령 선수는 만 40세 8개월 23일의 삼성 진갑용이다. 최연소 선수는 만 17세 11개월 14일의 NC 신인 구창모로 기록됐다. /정은주기자

아동학대 1년새 44% ↑

작년 9800여건 발생…사망 20건 달해

지난해 아동학대가 전년보다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총 1만7769건이며 그중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고 판정된 건수는 9823건이었다.

지난해 아동학대 건수는 2013년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1만3076건)와 아동학대 최종 판정 건수(6796건)에 비해 각각 36%, 44.5% 증가한 수치다. 이는 각종 아동학대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며 사회적인 관심이 급증했고 지난해 9월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피해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 조치하도록 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아동학대 유형별로 보면 방임이 18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1528건)와 신체적 학대(1415건), 그리고 성적 학대(295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나머지 4734건은 중복 학대였다.

아울러 아동학대로 병원에 입원한 건수는 57건이었으며 사망한 경우도 20건에 이른다. 학대 판정을 받은 건수 가운데 1397건은 고소나 고발로 이어졌으나 대부분은 지속 관찰(7376건)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학대가 일어난 장소는 가정(8456건)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어린이집(273건)과 복지시설(223건), 집 근처 또는 길가(178건) 순이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인천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폭행사건과 같이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한 경우는 267건으로 2013년(202건)보다 24.3% 늘었다.

/윤재흥기자 jsoul@metroseoul.co.kr

신나는 장보기 12일 서울 중랑구 우림시장에서 어린이들이 전통시장 장보기 체험을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저소득층 보일러 점검해 드려요

서울시, 특별점검…다산콜센터로도 신청 가능

서울시는 설연휴를 앞두고 저소득층의 보일러를 무상으로 점검해 준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시는 기존에 빠지거나 추가로 신청된 저소득층의 보일러를 주로 점검할 예정이다.

자치구 주민센터나 복지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다산콜센터로 연락을 해도 점검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홀몸노인이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나 다산콜센터에 전화하는 경우에도 보일러회사 서비스센터와 바로 연계해준다.

/황재용기자

안전처, 이달 말부터 청렴리더단 운영

국민안전처는 청렴한 조직 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청렴리더단을 구성해 이달 말부터 운영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안전처는 각 실국에서 청렴함으로 본이 되는 직원을 추천받아 최종 20명을 선발, 청렴리더단을 구성했다.

청렴리더단은 안전처가 청렴한 조직으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전략을 짜고 실천하는 데 선도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재난·소방·해양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청렴자문단을 꾸려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관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받을 계획이다.

/조한진기자 hvill

산불예방위해 국립공원 통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3개월간 일부 국립공원 탐방로를 통제한다.

16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지리산·한려해상·다도해해상·월출산·무등산 탐방로가, 다음 달 2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계룡산·속리산·내장산·가야산·덕유산·주왕산·월악산·소백산·변산반도 탐방로가 각각 통제될 예정이다. 또 3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설악산·오대산·치악산·북한산 입산이 금지된다.

아울러 공단은 공원별 적설량 등을 고려해 통제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산불 위험이 큰 곳은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해 산불감시원을 배치할 방침이다.

/황재용기자

41년만에 얼굴 비친 긴수염 고래 지난 11일 전남 남해군 미조면 앞바다 홍합 양식장 부이 줄에 걸려 세계적인 희귀 위기종 북태평양 긴수염고래가 12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1974년 동해에서 잡힌 후 41년만에 나타난 이 고래는 다행히 양식장 줄을 끊고 탈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국내 최초 댐 연결 '안동·임하 도수로' 5월 준공

국내에서 처음으로 댐과 댐을 연결하는 안동·임하댐 간 도수로 공사가 착공 5년만인 오는 5월 준공된다.

K-water안동권관리단은 경북 안동시 임동면 마리 안동댐에서 망천리 임하댐까지 1.925㎞ 구간에서 진행 중인 직경 5.5m 짜리 도수로 설치 공사가 86.4%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 시설은 임하댐 저수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홍수기에 수문을 열고 흘려 보낼 수밖에 없는 수자원을 안동댐으로 옮겨 보관해 수자원 활용도를 높이자는 취지로 지난 2010년 시작됐다.

공사에는 총 사업비 989억원이 투입됐으며 K-water는 도수로가 가동되면 연간 2370만t의 용수공급 능력을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30% 이하의 비용으로 댐 1개를 건설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다. 신규 댐을 건설할 경우 발생하는 환경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

/황재용기자

인사

■행정자치부
◇고위공무원 승진 ▲정부청사관리소 청사기획관 윤호철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고위공무원 전보 ▲대전청사관리소장 박성호 ▲지역공동위원회 지역생활국장 김경원
◇과장급 전보 ▲정책평가담당관 서주현 ▲참여행정과장 이주규 ▲재정정책과장 이우종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총괄과장 임근창 ▲국가기록원 콘텐츠기획과장 이상훈 ▲정부청사관리소 공사관리과장 이기홍 ▲정부청사관리소 기획과장 황수진 ▲과천청사관리소 시설과장 서유석
■국토교통부
◇국장급 승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공석주
◇국장급 전보 ▲정책기획관 유선용 ▲건설정책국장 이원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송석준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무원 전보 ▲기획조정실장 이충호 ▲권익개선정책국장 박계옥 ▲부패방지국장 곽형석
■여성가족부
◇과장급 신규 채용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illegible] 최윤식
■농촌진흥청
◇과장급 승진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재배환경과장 허선기
■서강대
▲교학부총장 윤병남 ▲대학원장 심종혁 ▲국제인문학부학장 최기영 ▲공학부학장 박석 ▲경기력부과장 겸 경영전문대학원장 김주영 ▲기초교육원장 우재영 ▲교무처장 겸 도서관장 우찬제 ▲학생문화처장 이상근 ▲대외교류처장 박수윤
■목원대
▲공과대학장 최봉운 ▲교수학습센터장 백은주 ▲국자신문사 겸 방송국 주간교수 변승구 ▲박물관장 김홍수 ▲예진조리과 학과장 겸 기획관리과장 이재란 ▲박물관 역사자료실장 겸 신학대학 교학과장 이종구 ▲학사지원과장 조학연 ▲정학지원과장 작순취 ▲미술디자인대학, 교학과장 김승연 ▲총무과장 김현규 ▲홍보팀장 겸 비서팀장 권경대 ▲전략사업단 팀장 김종현 ▲경리과장 황범선 ▲시설과장 겸 대덕문화센터 과장 송해님 ▲사회봉사센터 겸 장애학생지원센터 과장 김계다 ▲대학원 겸 교육대학원 교학과장 유경도 ▲취업지원과장 이행주
■전북 익산시
◇서기관 ▲송학동장 최경종 ▲안전행정국 세무과장 김진성 ▲주민생활지원국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영등2동장 박준권 ▲어양동장 이광현 ▲주민생활지원국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인화동장 이문복 ▲보건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산기면장 안호진 ▲모현동장 국승원 ▲주민생활지원국 경로장애인과장 이애란 ▲제술처전 담사업소장 최용선 ▲문화산업국 경관계 획과장 류철제 ▲신동장 한상철 ▲남산면장 박윤선 ▲안전행정국 장수과장 김석철 ▲환경녹지국 식품위생과장 조재광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illegible]동장 이영성 ▲문화시정국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망성면장 추상수 ▲함라면장 배수문 ▲건설교통국 주택과장 김선도 ▲상하수도사업단 하수도과장 소정섭 ▲금마면장 황익상 ▲용동면장 김용신 ▲남중동장 김류달 ▲중앙동장 임유태 ▲팔봉동장 최상혜 ▲삼성동장 김특근 ▲오산면장 김일순 ▲웅포면장 김세호 ▲상하수도사업단 상수도과장 고성봉 ▲유적전시관장 임숙영 ▲목천동장 유인숙 ▲안전행정국 교육홍보과장 이영희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이종보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장 유희룡 ▲농업기술센터 동위정책과장 오병식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인술 ▲여산면장 이위석

부고

▲안호림씨 별세, 안희록(중국우리은행 지점장)·미애 하남 동부초등학교 교사)·순애·혜영 씨 부친상, 신용일 (코스메틱 대표)·이종조(프로코 대표)·홍도연(자영업)씨 장인상, 김은예씨 시부상 = 11일 오후 11시 22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2호실 발인 14일 오전 6시. 02-3010-2262
▲손년희씨 별세, 김남기(경지대 농구부 감독·전 남자농구 국가대표 감독)씨 배우자상 = 12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2호, 발인 14일 오전 7시 30분 02-3010-2292
▲유림순씨 별세, 정호윤(연합뉴스TV 기자)씨 조모상 = 서울백병원 2층실 발인 14일 오전 8시 02-840-4444
▲배작공씨 별세, 배길(경찰대 교수부장)씨 부친상 = 12일 오전 6시 대구 범남대병원 장례식장 301호, 발인 14일 053-621-4647

"안전 제일"… 대학가 '술 없는 OT' 바람

마우나리조트 참사 1년 · 달라진 캠퍼스 풍속도

대학생 등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사고 발생 1년이 되는 올해 각 대학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 풍속도가 달라지고 있다.

상당수 대학들은 외부로 나가 합숙 형식을 취하던 OT를 교내에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외부에서 OT를 갖는 대학들은 합숙 장소의 사전 답사, 교직원 동행, 안전교육 등을 실시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 방침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때 음주 뒤풀이 문화가 상징처럼 여겨진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술 없는 OT를 지향하는 대학이 늘었다.

◆ 이제는 교내에서

동덕여자대학교는 매년 외부로 떠나던 일명 '새터'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소했다.

2013년까지는 교내에서 신입생들의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한 수강신청이나 학교 행정 등을 교육하는 OT를 진행하고 2박3일로 합숙 수련회를 떠났었다.

동덕여대 관계자는 "올해도 안전 문제를 고려해 외부로 나가지 않고 교내에서 단대별 학생들이 주관하는 행사를 진행하기로 학생들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학교는 지난달 13일 교내에서 OT를 진행했다. 서울대가 교내에서 실시한 것은 2012년 이후 처음이다.

중앙대학교도 '교내 당일 진행'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 OT를 실시한다.

중앙대 관계자는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그동안 끊임없이 지적됐던 과도한 음주로 인한 피해,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등 여러 문제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안전 교육 받아는 OT

대학들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문제에 대한 조치를 사전에 실시, 매뉴얼도 마련했다.

영산대 총학생회는 오는 26~27일 경주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 신입생 OT에서 대학 본부와 함께 50명 규모의 야간 순찰대를 꾸려 안전 점검에 나선다.

고려대는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단과대별로 신입생 OT를 하기로 하고 올해 처음으로 학생회 간부들을 불러 응급 조치와 소방 안전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화여대는 외부 OT를 떠나기 전 안전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 단과대에 배부했다.

◆사고 예방 위해 '금주'

금주나 절주 분위기도 강조되고 있다.

연세대는 총학생회 주관으로 교내에서 단과대별로 OT를 진행하면서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 안에서는 금주하기로 했다.

성균관대에서는 학생들의 지나친 음주가 불러올 사고에 대비해 '주량 제한' 과 관련 '자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영산대 총학생회와 경성대 총학생회는 외부 호텔에서 OT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안전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두 대학 총학생회는 '술 없는 OT', '술·담배 없는 OT'를 진행하겠다고 학교 측에 먼저 제안했다.

숙명여자대학교는 합숙 장소에서의 음주는 1인당 1캔으로 제한했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참가 인원 모두가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관련 기관에 안전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동 차량 연식은 5년 이내로 한정하고 합숙 장소는 가건물 사용을 일절 금지시켰다"고 밝혔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마우나오션리조트 사고 이후 대학가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풍속도가 달라지고 있다. /연합뉴스

설 맞이 분주해진 공항 설날을 일주일 앞둔 12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동작구 관내 공사장 점검 실시

체육관 붕괴 원인 규명 나서… 부실 감독 의혹은 부인

서울 동작구 사당종합체육관 붕괴사고와 관련해 동작구가 대형 공사장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12일 동작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모든 공사현장에 대한 철저하고 강도 높은 안전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점검 대상은 동작구 내 12개 공사장이다. 이달부터 설 연휴 전까지 안전기술사와 건축사, 건축구조물 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현장점검한다.

아울러 동작구는 서울시와 경찰 등과 합동으로 본격적인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구는 일각에서 제기된 날림 공사와 부실 감독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한편 사고는 옥상층 천장 공사를 위해 15m 높이의 지상 2층에 설치된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붓던 중 상단부가 V자로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사고로 작업자 11명이 매몰됐다 구조됐으며 이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윤지희기자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법원, 항공기 항로변경죄 인정

'땅콩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와 같이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또 그는 이후 진행된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와 함께 개입해 조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최대 쟁점이었던 항공기 항로변경죄를 인정했다. 국내에서 항로변경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제42조 항로변경은 공로(空路)뿐만 아니라 이륙 전 지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합당하다. 출발을 위해 푸시백(탑승게이트에서 견인차를 이용해 뒤로 이동하는 것)을 시작했다가 정지한 후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하고 출발했는데 이는 진행방향에서 벗어나 항로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 때문에 24분 가량 출발이 지연됐고 다른 항공기 운항을 방해했으며 충돌 가능성이 있었다"며 "승무원 업무 배제와 스케줄 조정 권한 등은 탑승 전 마땅한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지휘·감독권을 초월할 수 없다"고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와 업무방해 혐의도 인정했다.

다만 국토부 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유리한 조사 결과가 나오게 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여 상무에게는 징역 8월을, 김모(55)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윤지희기자 hsoul38@

피해자 전담경찰관 발대식

"피해자는 우리가 지킨다" 1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피해자 전담경찰관 발대식'이 열렸다. 이들은 사건 접수 시부터 사후 회복 제까지 강력사건과 폭력사건 등의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연합뉴스

Switch On!
우리은행은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기술금융으로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힘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우리은행
기술창업 기업사랑 대출
우리창조 기술우수기업 대출
우리 R&D 기업사랑 대출
우리상생파트너론
수출기업 마스터론
동반성장위드림대출